Weekly 공감
2009 10.14
No.32(통권 133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중점 기획
국민 소통 1번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1년
청년 안중근, 세기를 넘어 다시 태어나다
한글날에 법제처 홍보대사 된 이지애 아나운서
G20 더 큰 대한민국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세종사랑 한글사랑
바른 우리말 사용, 한글사랑의 시작입니다.
세종사랑, 한글사랑

www.culturemonth.or.kr

2009.10.1~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및 특설무대, 중앙공원 일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주관 : 2009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인천문화예술인의 날 대한민국 문화의 날 시민문화의 날

10 O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구촌 경제협력 새로운 장을 열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

지구촌에도 영향력이 큰 유지급 국가들의 모임이 있다. 1976년 주요 선진국들로 구성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방 선진 7개국 회의(G7)와 G8(G7+러시아)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G7, G8은 국제사회 주요 이슈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구촌 '비공식 운영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촌의 경제력 판도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 G7, G8의 대표성과 정당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금번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기존의 G7, G8에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주요 신흥경제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9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는 G20가 경제협력에 관한 지구촌의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2010년 G20 의장국으로 지명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 것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협력의 장이 바뀌게 된 것이다.

G20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가 출범됐고, 우리나라가 내년에 G20의 좌장으로서 지구촌의 경제 관련 중대사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을 주도하게 됐으니 말이다. 한국이 1907년에 세계 44개국이 참여한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이준 특사를 파견했으나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분사하지 않았던가.

그 이후 1991년에야 비로소 유엔 회원국이 됐고, 건국 이래 지구촌의 대소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우리에게는 실로 대단한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쾌거는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 축적해온 국력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1, 2차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여준 역량과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는 거의 '말만의 잔치'로 끝난 G7, G8 정상회의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를 G20 국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G20 정상회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자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 G20 정상 간 합의를 얻어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런던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과 정상선언문 작성에 적극 참여,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는 의제의 균형을 잡고 수사(修辭)가 아닌 행동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만으로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선택된 것은 아니다. G20에서 제외된 나라들 중 일부 국가의 G20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기존 G7 및 G8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 그리고 회원국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G13 혹은 G14로 기존 G7, G8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가도 있었다. 이들 나라 정상과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우리와 G20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 이들 나라를 설득, 끝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노력도 결국 한국 정부의 G20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기여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중차대한 역사적 기회를 글로벌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0.14_No.32(통권 133호)

20

기획특집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G20시대 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명예와 실리를 함께 얻을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표지 설명 10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막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종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40

44

발행일 2009.10.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MB 국정 운영의 핵심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복지예산 비중 역대 최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恨의 무대 다시 설 수 있다면…"

●● 〈Weekly 공감〉 31호(9월 30일자) '기획특집-서민·중산층 촘촘히 챙기는 민생정책'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미소금융은 긴급한 자금이 요구되지만 대부업체의 고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널리 홍보되고 이용되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에 대한 고통이 경감되기를 바란다."_ 유재범

"일자리 창출이나 월세 소득공제 등 좋은 내용의 기사가 많았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사에 감동을 받았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서민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서민 정책을 계속 펴주기를 기대한다."_ 이상협

"서민들은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집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남대문시장에서 손녀의 한복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서민안정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_ 박수영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경제속도(60~80킬로미터)를 준수하면 속도 변화가 큰 운전을 할 때보다 연료를 최대 6퍼센트 아낄 수 있습니다. 2백20킬로그램의 짐을 추가하면 연료가 2퍼센트 더 소모되므로 과적을 하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5분간 공회전하면 연간 1백2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합니다.

●● 〈Weekly 공감〉 31호 '휴먼스토리–병신춤 대가 공옥진 여사 뇌졸중 투병' 기사를 보고 독자들이 쾌유를 비는 마음을 담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릴 적 TV에서 공옥진 선생님이 병신춤을 추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무대 위의 공 선생님 모습은 어린 저의 마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가슴 떨림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인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무대에 설 수 없는 아쉬움도 크지만, 더 이상 선생님 뒤를 이을 제자가 없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한평생 무대에서 병신춤으로 살아오신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1인칭 극이 문화재 장르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무형문화재가 되지 못해 아쉽고 애통합니다."_ 서은주

●● 〈Weekly 공감〉 31호 '포커스–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기사와 관련해 올라온 댓글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성공적인 한국 개최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_ 두루누리

"내년 11월 G20 5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G20의 개념을 정치권을 위시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의 선진화로 이어졌으면 한다."_ 성유경

알립니다

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UCC 공모전'

관세청(세관) 업무를 재미있게 패러디해주세요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지원'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 등 주요 업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UCC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관세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직접 UCC를 제작함으로써 관세청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주제 '관세청 또는 세관을 홍보하는 CF' '관세청 또는 세관 업무와 관련된 단막극이나 콩트'
응모 마감 11월 6일. 11월 10일 수상자 발표, 시상식 별도 통보
응모 방법 3분 이내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공모담당자 e메일(jks@customs.go.kr)로 제출
시상 내역 최우수상(1명) 1백50만원, 우수상(2명) 각 1백만원, 장려상(3명)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 수여
문 의 042-481-7805,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1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0호(9월 23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신토불이 **3** 녹차 **4** 막걸리 **6** 소금 **7** 한우
세로 1 신발차 **2** 이연걸 **3** 녹색소비 **4** 막역지우 **5** 리베로

당첨자

김장응(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형옥(서울 서초구 양재동)
장은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황호민(충남 아산시 풍기동)
홍대욱(경남 양산시 소주동)

가 로

2.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대로 전하는 것. "OOOO이라더니 아들 녀석도 아버지를 닮아 노래를 곧잘 부르는구나."
4. 한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세계는 지금 G8에서 G20으로 OO이동 중이다."
5. 노래나 춤을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단. 활동하는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정부는 국제OO에서 실용외교, 세일즈외교를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8.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력, 통솔력.
9.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국제기관 등에서 의장이 된 나라. "대한민국은 2010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G20 OOO으로서 외교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 로

1.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그는 한국인이라는 것에 무한한 OOO을 느끼고 있다."
3.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 "OO이사로 승진한 것을 축하합니다."
4.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거리. OOO미사일.
6. 우리나라.
7. 신문이나 잡지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 위주로 다룬 기사. 촌평, 잡담, 가벼운 이야기.

독자 ♥ 공감

〈Weekly 공감〉은 독자와의 소통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독자 공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 전화번호와 간단한 자기 소개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이 이번 주 만난 독자는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사는 지연숙(70) 씨다. 서울에 사는 딸의 집을 오가던 중 열차에서 〈Weekly 공감〉을 처음 접했다는 지 씨는 열차 안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데 〈Weekly 공감〉이 좋은 친구가 돼준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정부 발행 잡지인지도 모르고 읽었다"는 지 씨는 〈Weekly 공감〉에 읽을거리도 많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아 요즘은 집에서 받아보는 열성 독자다.

농촌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과거 농촌보다 깨끗하고 주거 환경도 좋아졌어요. 다만 할거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워요. 서울 살 때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가,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농촌지역에는 노인정 외에 노인들이 시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요.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Weekly 공감〉을 읽으시면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인지요.

부담 없이 읽을 만한 이야깃거리가 많은 데다 생활정보들이 알기 쉽게 정리가 잘돼 있어서 좋아요. 신문에서 읽을 때는 어려운 이야기 같았는데 〈Weekly 공감〉을 읽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Weekly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관리 정보도 가끔 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들도 꾸준히 많이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기획특집에서 다룬 서민 민생정책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

홍양희 서울 영등포구

1. '인터뷰-지하철역 카페 실버데이' 기사를 잘 봤다. 열심히 일하시는 김미순, 박미령 님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일산 주엽역에 가면 꼭 들러서 정성 가득한 커피를 맛봐야겠다.
2. '미소금융'이란 제도가 생긴 것을 이번 기사로 알게 됐다. 서민정책에 잘 어울리는 명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기업과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힘써서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3.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여성인력센터들을 다뤘으면 한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길꽃어린이도서관에 가봤는데 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도 많고 대출도 가능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여성인력센터에 대한 소개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김영미 경북 상주시

1. 휴먼스토리로 다룬 공옥진 여사 기사를 잘 봤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유럽 등지에서까지 인기를 끌었던 공 여사가 투병을 하고 있다니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2. 서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3. 평소 알지 못했던 정책정보들을 잘 알려줘 즐겁게 받아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부 정책들을 소개해줬으면 한다.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1.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2.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일찍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3. '장인정신'으로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삶을 많이 다뤘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1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세종대왕 납시오!

제563돌 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 제막

동아DB

제563돌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백성을 사랑했던 어진 모습을 형상화했다.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이 한글날을 맞아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9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순신 장군 동상 뒤쪽으로 2백1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종대왕 동상은 높이 6.2미터, 폭 4.3미터에 무게 20톤 규모로 높이 4.2미터 기단 위에 세워졌다. 또 동상 주변에는 해시계, 측우기, 혼천의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각종 조형물이 설치됐다.

세종대왕 동상은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각가 김영원 홍익대 미대 교수와 세종대왕동상위원회, 서울시가 함께 제작했다. 온화하면서 위엄 있는 40대 후반의 세종대왕 모습이다. 왼손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서 들고 오른손은 가볍게 들어올린 형태의 좌상(坐像)으로,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백성을 위해 익히기 쉬운 한글을 만든 대왕의 어진 모습을 형상화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진솔한 대국민 연설… 소통과 교감의 1년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공감을 모색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 20회 특집 대담은 민경욱 KBS 기자와 함께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반가운 인사가 국민 곁으로 다가온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이 첫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한 이래 2주일에 한 번씩 모두 25차례 연설이 이뤄졌다.

1차 연설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2일의 25차 연설까지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소소한 가족 이야기에서부터 정치와 경제, 북한 핵과 국제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1차 연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워주고자 했다. 2차 연설(2008년 11월 3일)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를 담았고, 3차 연설(2008년 11월 17일)은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이 남미 순방 후 가진 4차 연설(2008년 12월 1일)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고민했으며, 5차 연설(2008년 12월 15일)에서는 겨울 추위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질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마침 이날이 어머니 기일이었던 대통령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 사랑과 관심이 모두의 희망임을 강조했다.

6차 연설(1월 12일)은 다소 무거웠다. 외국 언론에 비친 국회의 폭력상을 전하며 안타까워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진 7차 연설(1월 24일)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밝히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라고 말했다.

1년간 25회… 국내외 이슈 국민에 직접 전달

8차 연설(2월 9일)은 남북관계 등 현안에 대해 원칙과 기본을 강조했고, 9차 연설(2월 23일)은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뉴질랜드 등 3개국 순방 후 가진 10차 연설(3월 9일)은 국제 공조 현황을 전했으며, 복지지원금 유용사건이 터진 후 가진 11차 연설(3월 23일)에서는 복지전달체계 재정비를 약속했다. 12차 연설(4월 6일)은 북한 핵 및 로켓 발사와 G20에서의 한국의 공동의장단 선정 사실을 전했으며, 13차 연설(4월 20일)은 자전거와 녹색성장을 담았다.

가정의 달에 발표된 14차 연설(5월 4일)은 위기의 가정을 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희망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이 지난해 10월 13일 처음 방송된 지 1년이 됐다.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그동안 자신의 개인 경험이 녹아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주제들을 국민 곁으로 좀 더 친근하게 실어 날랐다.

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른 뒤 가진 15차 연설(5월 18일)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다시 신발 끈을 조이자"고 독려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발표된 16차 연설(6월 1일)은 이를 애통해하며 우리가 상중일 때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17차 연설(6월 15일)에서는 비등하는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회복 체감이 가장 늦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18차 연설(6월 29일)은 그동안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들은 제안과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였다.

해외 순방 중에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연설 놓지 않아

19차 연설(7월 13일)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을 전했고, 20차 연설(7월 27일)에서는 KBS의 민경욱 기자와 가진 특별대담을 통해 그간 국민들이 가졌던 궁금증에 답했다.

21차 연설(8월 10일)에서는 녹색성장과 녹색생활을, 22차 연설(8월 24일)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화합과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권위를 세우자고 역설했다. 23차 연설(9월 7일)은 서민의 꿈과 희망을 얘기했고, 24차 연설(9월 21일)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가장 최근인 25차 연설(10월 2일)에서는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소식을 전했다.

항상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하는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대통령은 민경욱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평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앞뒤가 잘리거나 본의 아닌 표현이 많이 반영돼 답답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라디오·인터넷 방송 7, 8분 동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고자 했다.

청와대의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은 "대부분의 라디오·인터넷 연설 원고가 대통령 구술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원고 작성 후에도 대통령이 다시 원고를 고치며 자신의 육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6~9월 사이 15차례 라디오 연설을 선보였다. 라디오 연설로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담화(爐邊談話·Fireside Chat)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대공황 속에서 수시로 라디오를 통해 차분히 설득해 국민들 사이에 신뢰를 쌓았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청취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라며 "그것은 지금도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대신 청와대는 전문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의 전문가 모니터인 김상준 동아방송대 공통기초학부 교수는 "대통령 음색이 원래 탁음이지만 최근 방송에 익숙해지며 안정된 음색으로 바뀌고 있다"며 "방송을 할 때 상대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심정으로 하시라는 충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즐기는 경지'가 된 것 같다"고 평했다.

또 다른 전문가 모니터인 허의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라디오 연설이 딱딱하고 일방적이기 쉬운데 요즘 들어 주제나 형식을 다르게 해가며 청취자를 당기는 흡입력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국민의 반향도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4차 때부터는 동영상도 촬영돼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일 때에도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빼놓지 않고 챙길 정도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말은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들려올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방송 매체

(라디오 2채널, 인터넷 7개 포털, TV 5개사) *다음 연설 예정일 : 10월 19일, 격주 연설

구분	매체	방송 시간
라디오	KBS1 AM (97.3)	연설일 오전 7시 40분
	TBS (FM 95.1)	연설일 오전 8시, 오후 6시 50분
인터넷 (동영상)	청와대 홈페이지 (president.go.kr)	
	유튜브 (youtube.com/presidentMBLEE)	
	다음 (TV팟)	
	네이버 (KTV 뉴스)	
	판도라TV (pandora.tv/800)	
	청와대 블로그 (다음, 네이버, 야후)	
	곰TV (ch.gomtv.com/8000)	
TV (동영상)	케이블 TBS	연설일 오전 8시, 오후 6시 50분
	KTV	연설일 오전 9시
	지하철TV (TBS) 1~4호선 역사	연설일 오전 8시, 오후 6시 50분
	3호선 객차 내	연설 다음 날 방송
	KTX (연합뉴스) 객차 내	연설일 방송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요약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와 미래가 바로 섭니다"

01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회사 수위로 일하던 제 아버지는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했습니다. 어렵던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기업이 무너지면 그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압니다. 세계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위기 극복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기업과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 서로 믿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2008년 10월 13일)

02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의 횡포, 은행의 '꺾기'가 여전하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해 감세와 기술 개발, 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도 중소기업에 비중을 둘 것입니다. 해외에서 만난 정상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2008년 11월 3일)

03 어려움의 실체를 알려면 세계의 눈으로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금융위기를 빌미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반대하는 등 제 주장은 합의 내용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은 합의 내용 이행을 주관할 3개국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경제금융 질서를 만드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라 안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위기극복에 힘을 뭉쳐야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04 청년실업 해결은 가장 중요한 국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년실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이며 나라의 걱정거리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미래 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 등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8년 12월 1일)

05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고생하는 부모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돈 벌고 싶다는 여중생, 삶의 의지조차 갖기 어렵다는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읽으며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시절 거리에서 사과 장사를 하다 돈 없는 설움을 경험한 제가 가출하기로 한 날 새벽 어머니의 기도소리에 차마 집을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06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합시다

지난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우리 국회 사진이 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치 선진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 일류국가는 없습니다. 국회 폭력사태는 우리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법질서의 상징이자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예산 조기집행 효과가 반감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정치적 양극화'야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은 극복 과제입니다. (2009년 1월 12일)

07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갑시다

설 연휴 며칠 전, 용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무척 안타깝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어려울 때마다 가족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통해 희망을 키워갑시다. 힘겹고 어렵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 대에는 잘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냈고 그러한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설이 가족의 힘과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9년 1월 24일)

08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걱정하지만 정부는 시작이 조금 어렵더라도 원칙대로 제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용산에서 일어난 비극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지만 철저한

이명박 대통령이 9월 4일 경기 구리시의 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격려했다.

원인 규명을 통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당면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경제 운용의 원칙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부정적 사고로 무조건 반대하는 이들보다 원칙을 갖고 긍정적 사고로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9일)

09 좋은 교육 없이 좋은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인재 없이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덕성여중에서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믿음,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학부형들을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재 양성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력과 폭넓은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도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인재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2009년 2월 23일)

10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평가하며 외환위기 극복 경험과 일자리 나누기 등 정부 정책을 듣기 원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러드 총리,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과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하고 국제공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 체결한 투자와 연구 협정은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정상간 실용외교의 결과입니다. (2009년 3월 9일)

11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해 서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시의적절한 지원에 문제가 있는 복지전달체계도 재정비하겠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을 서민을 위해 긴급히 '일자리 추경'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올해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예산이 집행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3월 23일)

12 우리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공동의장단으로 활동하며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4월 6일)

13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전국에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열풍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이면 4대강 물줄기를 따라 전국이 자전거길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전거 여행은 소외된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거의 생산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자전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입니다. (2009년 4월 20일)

14 가족은 용기와 힘의 원천이고 희망의 샘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가족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형님과 누님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가족들의 사랑이 저를 바로잡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자살자, 상처 받는 어린이들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4일)

15 언덕을 빠르게 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맵시다

요즘 경제가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자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기하강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외국 언론이 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기극복 못지않게 위기 이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맵시다. (2009년 5월 18일)

16 완벽한 안보로 국민의 안전을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지난주 뜻밖의 슬픈 일을 당해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슬픔을 딛고 떠나간 분의 뜻을 잘 받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상중일 때 북한이 강행한 2차 핵실험은 실망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동아DB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 1호기 출고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로켓 발사 이후 긴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은 없지만 대화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2009년 6월 1일)

17 안보와 경제, 특히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유심히 여론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의 모습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되풀이되는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민들의 경제회복 체감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2009년 6월 15일)

18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게 여러 가지를 묻고 건의합니다. 지난주 OECD와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신 분들도 있지만 국론 분열 위험이 있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19 이번 유럽 방문으로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큰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한·EU FTA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고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 종결을 선언할 것입니다. 한·EU FTA가 되면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G8 확대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차단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합의문에 채택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제에

도 우리의 발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내년 우리는 G20 의장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2009년 7월 13일)

20 국민과의 소통 위한 라디오·인터넷 연설 특집 대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라디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송에는 맞지 않지만 특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보다 서민의 고통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학원의 심야영업 금지 조치는 필요했습니다. 논란이 심했던 미디어법은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기부는 제 자신과의 오랜 약속입니다. 그간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이해와 격려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7월 27일 · 민경욱 KBS 기자 진행)

21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절약이고, 녹색생활의 가치입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 올라 많은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해결은 위기인 동시에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녹색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녹색생활입니다. 녹색생활은 누구라도 오늘 당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수거 선진국인 우리는 녹색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2009년 8월 10일)

22 화합과 통합이 바로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큰 정치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제 떠나보냈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합과 통합이 바로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합'을 국정 운영의 중심 의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 역사의 일부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2009년 8월 24일)

9월 4일 경기 포천시의 장애인 직업시설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3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포천의 장애인 직업시설과 구리 재래시장을 찾았다가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장애인 작업시설 분들은 일을 통해 꿈과 자존심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리 재래시장에서는 물건 하나 팔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상인들에게 들었던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힘 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7일)

24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신용 부족으로 단돈 몇백만원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고, 이제 서민 무담보 대출, 일명 '미소금융'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어 자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입니다. (2009년 9월 21일)

25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차마 고향에 못 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렵지만 희망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우리가 개최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최고 수준인 81조원입니다. 사상 최대 풍년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쌀값 하락에 걱정이 크지만 쌀 수매를 늘려서라도 그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일) G

정리 · 박경아 기자

하토야마 일본 총리 방한 韓日 정상회담

北核 '그랜드 바겐' 추진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북한 핵문제 일괄타결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은 우호적인 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신(新)한일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추진하고 긴밀히 공동 대처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신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순방국으로 한국을 택한 하토야마 일본총리와 10월 9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민주당 정권 첫 총리로 지난 9월 16일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에 공감하고 일괄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밝히고 "두 정상은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북핵문제 타결 방안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전폭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의 핵개발, 나아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해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즉 핵 포기 의사 뜻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적인 협력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정말 올바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고, 미국, 중국과도 협력을 하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6자회담의 무대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미북 간 회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미북회담의 전제로서 6자회담을 꼭 유도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미북 간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성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자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늘 올바르게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 안에서 중요한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자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日 총리 "과거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어야"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는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지만 국민의 감정이 통일돼 있지 않은 만큼 내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결론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일왕 방한은 고령인 데다 일정문제도 있어 간단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도 논의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와 관련, "양국이 중심이 돼서 많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가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한걸음 내딛자 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간 협력을 포함한 민간 경제

한일 양국 정상 부부가 청와대에서 함께 차를 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일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 "新한일관계 정립 계기"

한편 이날 회담장 분위기는 한일 정상회담을 '신(新) 한일관계' 정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한일 양국 정상의 의지가 강해 의견이 크게 충돌하거나 엇갈리는 부분 없이 시종 화기애애했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 내내 상대국에 친근감을 표현했고 덕담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경 하토야마 총리 내외가 청와대 본관 앞에 도착하자 밝은 표정으로 "만나서 반갑다"고 맞이했고, 이어 양국 정상 내외는 활짝 웃으며 기념 촬영을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방명록에 '우애(友愛)'라고 적으며 한국과의 우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류팬'이 된 것으로 알려진 미유키 여사는 김 여사에게 태극 문양으로 묶은 청홍 꽃다발을 전달했다.

발전적인 한일 양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두 나라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도 예정 소요시간인 20분을 훌쩍 넘겨 35분간 진행했고, 이어 열린 확대정상 회담에서도 관계 증진을 모색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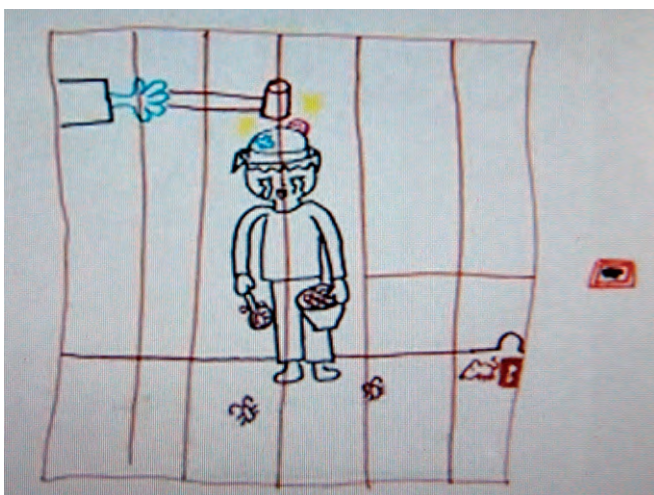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다음 날(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참석차 함께 출국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향후 협력관계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아동 성폭력,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처벌 수위 높이고 인터넷에 신상 공개

정부는 10월 8일 총리실 주재로 정부부처 합동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가해자 격리 및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연합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가해자가 평생 감옥에서 벌레와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표현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가해자인 조두순(57) 씨가 등교하는 8세 여자 어린이를 등굣길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어린이는 조 씨의 증거인멸 시도로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조 씨에게 징역 12년형(출소 뒤 7년간 전자발찌 부착, 열람정보 5년 공개)을 확정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은 조 씨가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법 제10조 2항 등을 들어 감형의 사유를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 '감형의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 들끓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 거세 시술(폴란드, 체코), 종신형(미국), 사형(이란) 등으로 강력히 다스리는 외국에 비해 우리의 처벌 기준이 관대하다는 여론에 따라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성폭력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월 8일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총리실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는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6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 결과 정부는 성범죄자 격리를 강화하며,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대책을 보면 △성범죄자의 양형 기준과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높이고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아동 성범죄 사건 조사 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등·하교 도우미와 상담 전문교사 배치를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현행 10년에서 더 늘려

먼저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성범죄자 양형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의 성범죄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자에게 성폭력으로 부상을 입히면 기본 형량으로 징역 6~9년, 가중 처벌이 필요한 경우 징역 9~11년을 선고하는데, 이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타 범죄자에 비해 높은 반면 실형 선고율이 40퍼센트에 못 미치고 가석방까지 감안하면 사회 격리효과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천8백39건 중 42.1퍼센트인 7백74건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30.5퍼센트인 5백62건이나 됐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타 범죄에 비해 높지만 실형 선고율은 40%에 못 미친다. 법무부는 현행 성범죄자 양형 기준인 기본 형량 징역 6~9년, 가중 처벌 징역 9~11년의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해 이번 대책에서는 검찰이 성범죄자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항소하고, 감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전자발찌, 즉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

연합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

내년부터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맞벌이가정 아동 등 · 하교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와 함께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지니게 돼 있어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의 개인휴대단말기(PDA)로 통보되는 것이다. 전자발찌의 위력은 컸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총 4백72명 가운데 1명만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데, 이는 전자발찌 미부착 성폭력범의 재범률(35.1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흉악범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 여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을 감안해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각국에서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혈액, 모발 등 DNA 감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법제처 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다.

학교 주변 CCTV 설치 등 안전망 강화

또한 내년부터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학교장 등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검색할 수 있다.

어린이들 주변의 안전망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통신사의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며, 현재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맞벌이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말까지 어린이 놀이터, 공원 3천5백55개소에 설치할 폐쇄회로(CC)TV를 11월 안에 조기 설치한다.

전국 초등학교 1만1천2백59개교 중 55퍼센트인 6천2백46개교에 CCTV를 연내 설치하며, 당초 201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70퍼센트까지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학교에는 전문 상담교사를 현행 7백79명에서 1백4명 더 늘려 배치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10개소인 여성부 산하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16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응급 구조, 신고, 소송 등 법적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성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사건 수사 시 어린 성범죄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는 여성부와 경찰청 주관으로 설립된 성폭력지원센터인 원스톱센터 16곳이 운영 중인데, 이들 모든 센터에 전문가 참여제가 확대 시행된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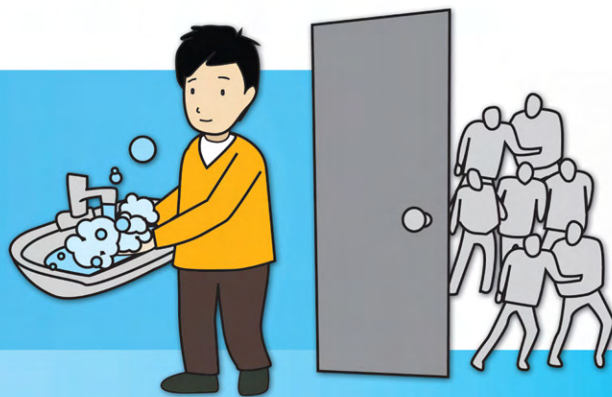
글 · 최은숙 기자

일러스트 · 채홍석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특집

2010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경제 선도국 코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리더이자 세계 현안의 중재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쾌거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며,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던 우리나라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국가가 됐음을 의미한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명예와 실리를 함께 얻을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할 과제가 주어졌다.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2010 코리아, 세계의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 내년 11월 한국 개최… "국격 높이는 계기 될 것"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 리더이자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명예와 실리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동아DB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G20 정상회의 유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미국 피츠버그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인정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례화 이후 첫 회의를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G20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국제사회 질서를 이끌어오던 G8의 역할을 대신한 새로운 국제사회 운영 체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듯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내년 정상회의까지 유치한 것은 세계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국가로 거듭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G20의 성공적인 금융·경제위기 대응 노력에 크게 기여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 국민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0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에 대해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태도가 달라졌다.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10월 8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을 변방으로 보던 이제까지와 달리 대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동행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최희남 G20 기획단장 역시 잇따른 초청행사와 면담 요청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던 것이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의 목소리는 없었다.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세계 주요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는 정치적 위상과 국가 가치 상승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플러스 요인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 유치가 약 5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행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외에 대외신인도 상승,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 실질적인 플러스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유치 효과가 서울올림픽 만큼 클 것이며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유치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감도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은 세계경제 회복이 진전돼 출구전략 등 위기 후 세계경제 관리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 제도화 등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20개 회원국들 간의 갈등을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세대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정상회의 경제효과 약 5억 달러 등 플러스 효과 상상 이상

다행히 우리는 경제발전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슈를 서로에게 잘 이해시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대표를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결 높아진 위상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다음 선진화로 가려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런 노력과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심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의 목소리는 없었다.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월 6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내년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별도기구를 발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G20 기획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공일 위원장이 진두지휘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의제설정과 외교업무 역할을 분담해왔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 기구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조기에 개최 도시를 결정할 방침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신흥 경제국에서 세계경제 중심국으로

'MB 실용외교' 결실 맺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 취임 후 줄곧 실용외교를 펼쳐온 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세일즈 외교와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또 올해는 자유무역 수호와 녹색성장 선도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쾌거도 이뤘다. 정부가 그동안 활발히 펼쳐온 실용외교의 성과를 돌아본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거둔 커다란 성과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2010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기분"이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특별기 안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데 대한 기쁨의 발로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2010 G20 정상회의 유치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국민의 성원과 격려 덕"이라는 감사의 뜻도 전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펼쳐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해외 정상회담을 가장 활발하게 벌인 이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을 표한 적도 있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한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노력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정상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네 차례, 러시아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변 4국 외교를 활

발히 전개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비롯해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시행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달러 파이프라인 확보 △철도, 에너지, 녹색 등 3대 신(新) 실크로드의 정책화 기반 마련 △러시아 명태조업 쿼터 2배 확대 △일부 부품소재 공단의 한국 설치 추진 △한중 간 교역액 2천억 달러 조기달성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과 '21세기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전략동맹',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는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 주변 4국과 모두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기틀을 확립했다.

세계화, 다변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 들어 정부는 이들 4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창조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변 4국과 동반자 관계 구축

올해 정부가 펼친 실용외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거다득(一擧多得)'이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외국행에서 여러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추진해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최소 비용과 시간을 들여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경제학의 기본원칙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부터 8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 대상국인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3개국을 국빈 방문해 '신아시아 협력 외교'의 기틀을 다졌다. 당시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 핵심우방국이자 에너지와 자원의 주요 공급국인 이들 3국과 각기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자 간 협력기반을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호주, 뉴질랜드와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FTA 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또 인도네시아와는 협력관계를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정보화 분야로까지 넓혔다.

4월 초 이 대통령의 방영(訪英) 성과도 대단했다. G20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월 31일 영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 내외는 4박5일간 런던에 머물며 미국을 비롯한 5개국 정상과 각기 양자회담도 갖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해법 도출의 조율사 임무를 자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

美 하원 찰스 랭겔 세입위원장

"여성 · 아동 인권 강력한 수호자 김윤옥 여사 존경합니다"

동아DB

김윤옥 여사가 9월 21일 미국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만든 해물파전을 대접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찰스 랭겔(민주당) 세입위원장이 9월 29일 미 하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찬사를 보냈다. 6 · 25전쟁 참전용사인 랭겔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후 연단에 서서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우아하고 중요한 여성 중 한 명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행사에 동행했을 뿐 아니라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베풀었다"고 소개했다.

랭겔 의원은 이어 "나는 1950년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함께 싸웠다"며 "올여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전의 희생을 기리는 법안에 서명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법'에 서명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 주요 관공서 등은 한국전 휴전일인 매년 7월 27일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랭겔 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융성하는 한국을 보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느낀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 랭겔 의원은 김 여사가 이화여대에서 보건교육을 전공했으며 이 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네 번째 대통령 부인이라는 경력까지 밝히며 "김 여사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가족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1일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의 레오날즈 연회장에 한국전 참전용사 56명과 가족들을 초청해 한식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직접 해물파전을 만들어 대접한 일은 지금도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스탠드 스틸(Stand Still ·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과 금융 부문의 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스탠드 스틸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전후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만나 양국관계 발전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 기후변화 대처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동아DB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녹색성장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양자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우애를 다졌다. 호주의 러드 총리는 회담 중 "이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정상 중 부실자산 처리에 관해 가장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는 실력가"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먼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5월에는 중앙아시아 순방이 추진됐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한층 돈독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 발하슈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에너지 자원, 산업, 인프라 등 9건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6월 초 우리나라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한 · 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 · 아세안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극찬을 받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월 세계 녹색뉴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 천명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집중됐던 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더불어 한 · 아세안 FTA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공동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40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 · 아세안이 2015년까지 정치 · 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 · 문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관계는 경제교류를 넘어 외교 · 안보 공조로까지 발전했다.

특별정상회의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 실험과 군사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등 대북 공조를 결의했다. 6월 28일 일본 아소 다로 당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대처 및 실질적 경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발전적 협의가 이뤄졌다.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경제 · 안보 협력 관계 다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글로벌 리더로 떠오른 것도 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이탈리아 정부 초청으로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일은 좋은 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초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들에게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확대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호

AP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은 지난 2월 제25차 유엔환경계획 집행위원회에서 세계 녹색뉴딜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주 총리와 또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7월 13일에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바로 스웨덴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확대, 한·유럽연합(EU) 협력 증진, 국방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등을 이끌어냈다.

전략적 FTA 체결로 각 대륙 FTA 선점기지 구축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FTA 체결도 실용외교의 한 축이다. 정부는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지난해와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했다. 또 올해 6월에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7월엔 한·EU FTA의 '실질적 타결'이, 8월엔 인도와 내용상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각 대륙에 모두 FTA 선점기지를 마련했다. 특히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를 타결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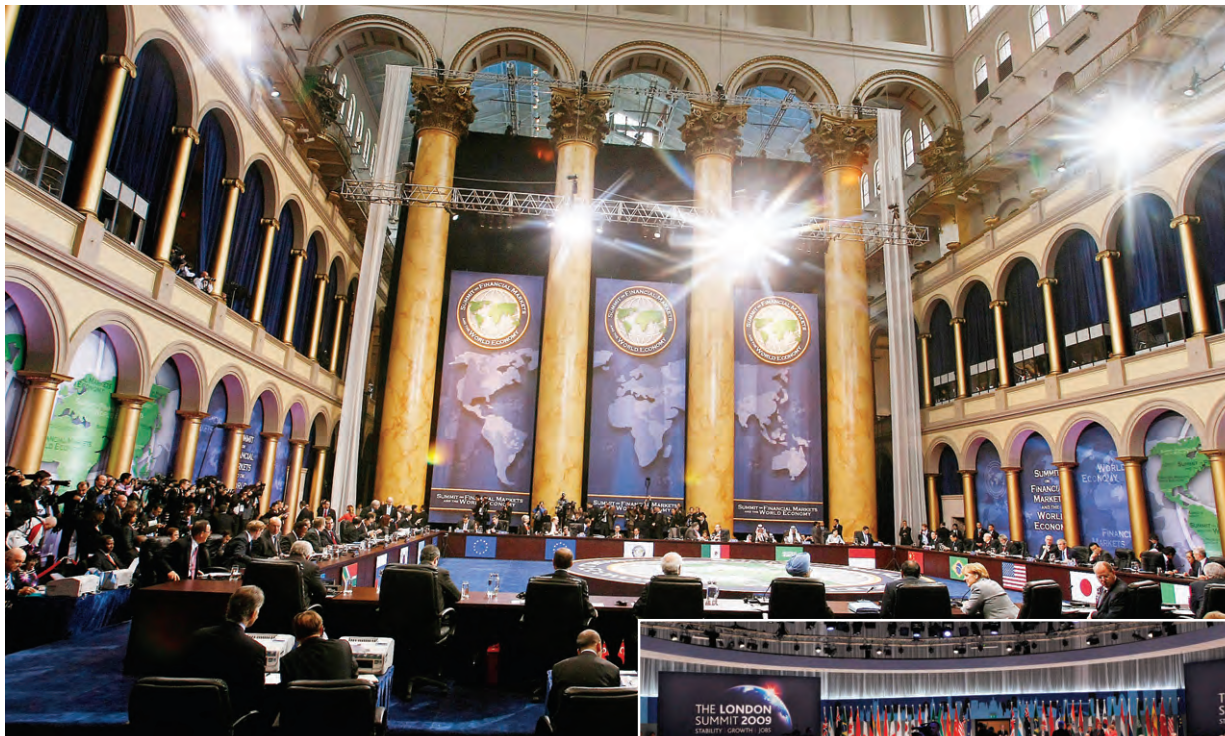
또 중국, 일본,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FTA 발효로 대외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FTA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과 보호무역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도 국제사회의 극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 녹색뉴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올해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미래전환기술로 채택되고 한국이 개발 선도국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9월 22일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의장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해 여러 정상들의 호응을 얻었다.

다각적인 실용외교로 명실 공히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우뚝 선 우리나라는 이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G8 확대정상회의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가를 넘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내년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첫 번째 G20 정상회의(위).
2차 G20 정상회의는 올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아래).

신흥개발국으로 세계 권력의 중심 이동

G20, 세계 질서를 새로 그리다

한때 세계는 'G5(Group of Five)'로 대표되는 소수 거인(Giant)들의 세상이었다. 잠시 세계를 주름잡던 G5 이후 다국적 협의체는 G20로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흔들리면서 신흥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국적 협의체인 G20가 급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의 목소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 쇼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경기침체 극복 과정에서 입지를 다진 다국적 협의체가 G20이다. G5, 혹은 G7 등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한 G20로 세계의 권력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세계 권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9월 24, 25일 열린 이번 3차 G20 정상회의다. 향후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한국이 차기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지각변동의 증거다.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의 도움 없이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1980년대만 해도 G7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은 80퍼센트였다. 여기에 러시아가 참여한 G8이 탄생하면서 세계경제는 G8이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부상하면서 G8의 비중은 5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위기에서 훨씬 빨리 벗어나 세계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

"G20는 국제 금융협력 위한 최고의 경제협의체"

G20 국가들은 피츠버그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발표된 정상선언문에 'G20가 국제 금융협력을 위한 최고의 경제협의체(Premier Forum)'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였던 G20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가 된 것이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제 경제문제를 조정하는 회의를 G8에서 G20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세계의 권력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했다.

1백8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G20 위상 역시 높아졌다. G20로의 권력 이동은 10월 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입증됐다. IMF·세계은행 제64차 합동 연차총회에 이틀 앞서 회의를 개최한 IMFC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IMF의 24개 이사국 모임인 IMFC는 IMF 총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IMF의 핵심조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세계경제가 'G20 체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 정상회의 의장국 · 개최국으로 한국 위상 높아져

이날 나온 IMFC의 공동선언문 세부안은 3차 G20 정상회의 선언문과도 흡사하다. IMF의 출자금 분담비율(쿼터) 개혁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의 합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IMFC도 G20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이 보유한 쿼터 가운데 5퍼센트를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1년 1월까지 쿼터 개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경기 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서도 IMF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출구전략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G20 정상회의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 11월 의장국으로서 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한국은 세계 권력 이동의 상징인 동시에 G20로의 권력 이동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아시아와 신흥국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는 미국(1차 워싱턴·2008년 11월)-영국(2차 런던·2009년 4월)-미국(3차 피츠버그·2009년 9월)-캐나다(4차·2010년 6월 개최 예정) 등 선진국에서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다.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무엇보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꼽혀온 결과다. 또 그동안 보호무역주의, 출구전략 등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G20 내 한국의 지위가 어떠한지는 피츠버그 회의장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과 함께한 피츠버그 회의 참석자들은 전보다 훨씬 많은 정상들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G20의 위상과 더불어 한국의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은 10월 4일부터 IMFC 회의,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잇따라 열린 터키 이스탄불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에는 각국의 면담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 대표단원끼리도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새로운 권력중심이 된 G20,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 리더로 부상한 한국 모두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G20의 부상은 국제 논의의 중심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회원국들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시아권, 신흥경제권의 통합된 목소리 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게 필요한 국제 공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경제위기가 해소될 경우 경제 분야로 영향력이 국한된 G20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도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 세계의 중심은 G20로 결정됐다. 이제 아시아국가, 그리고 신흥국가로서 처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이 각국 간에 얽힌 문제를 잘 풀어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상도, 나아가 G20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3차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중심축의 변화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국제 공조 연혁

연도	내용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들이 경제협력 위해 G5(Group of Five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구성. 이후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 설립.
1997년	러시아 참여로 G8 설립.
1999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G20 재무장관회의 출범. *G20 회원국 : G7(미, 일, 영, 프, 독, 캐, 이)과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EU의장국
2008년	장관급 G20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 최초의 G20 정상회의 개최(11월 미국 워싱턴)
2009년	G20 2차 정상회의(4월 영국 런던), 3차 정상회의(9월 미국 피츠버그)
2010년	**G20 4차 정상회의(6월 캐나다), 5차 정상회의(한국)**

일러스트 · 남동윤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성과

"위기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가동

9월 25일 폐막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위기 대응'에서 '위기 이후'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새 틀을 짜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정상회의 선언문에 나온 핫이슈를 분석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방향을 가늠해보자.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우리에게나 세계적으로나 의미가 남다른 '사건'이었다. 내년 11월 우리가 아시아권 국가로는 처음 G20 정상회의 개최국가가 된 것, G20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이 된 것은 모두 그 의미가 심대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관계자가 "G7은 이미 과거의 협력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 힘의 중심축은 G20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G20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이었던 프랑스와 일본도 대세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논의 주제가 위기 대응에서 위기 이후로 옮아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위기 이후 새롭게 부각된 국제사회의 고민에 대해서도 '알맹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영국에선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을 일부 상향하는 등 그간 G20 차원에서 논의됐던 금융 규제 내용이 현실 규정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 CEO들의 연봉 규제나 신용평가사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G20 정상들의 공식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자칫 지루하고 정치적인 수사로 보이지만 이번 선언문은 향후 글로벌 경제 이슈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좋은 척도라는 점에서 한 번쯤 음미해볼 만하다.

동아DB

미국 최대 경제 중심지 월가(Wall Street)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돼 있다. G20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개도국 역할론 강조

이번 회의에서 부각된 가장 큰 화두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새 틀 짜기, 바꿔 말해 세계적인 경세제민의 틀 바꾸기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 문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반복되는 자산 거품에 대한 회의가 깔려 있다. 리밸런싱 과정에서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 경제권의 역할론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목소리와 위상이 한층 강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개발경제권 국가와 선진국의 가교 역할에 공격적으로 나선 영향이 크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둔 현안이다. '경세제민의 새 틀' '위기 후 전략'으로 요약되는 이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그 원인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 독일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과 미국, 영국과 같은 만성 적자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동선언문은 일단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상수지 적자국가는 민간 저축을 늘리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며, 반대로 흑자국가는 국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자는 게 큰 방향이다. 원론적으로 이견이 나오기 힘든 수준의 언급이다. G20는 정책공조의 실효성을 위해 IMF가 지속적으로 상호 평가와 정책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이다. 균형성장을 위해선 불균형 상태에서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한다. 서로 똑같이 부담을 나눌 수도 있지만 힘을 내세워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금태환제 폐지나 플라자합의 당시처럼 또 하나의 미국을 위한 빗잔치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경기부양책 회복 신호 확실할 때까지 유지

일단 미국의 타깃은 중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표면적으론 중국이 수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기보다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고정환율제 유지에 강한 톤의 비판을 내놓는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균형 회복의 '부담'을 누가 질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G20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경상수지 적자국가는 민간 저축을 늘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흑자국가는 국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자는 게 큰 방향이다.

각국 정상들은 다만 실행 중인 위기극복용 경기부양 정책은 회복 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아직 시행은 시기상조이나 사전 준비를 해나간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상들은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지원을 받아 출구전략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내년 4월 캐나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호주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

하면서 출구전략의 결행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 오는 11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원인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운용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G20의 금융 규제 논의는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1, 2년 안에 구속력이 실제 발효될 조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전에도 경제위기 이후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가별로 현실적인 강제력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논의가 진척된 적은 없었다. 국제기구 차원에선 "우리는 이런 조치에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는 게 고작이었다.

은행자본 규제 강화… 2012년까지 강제 이행 계획

G20는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합의된 자본 규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늦어도 2012년까지는 국가별로 이행을 강제한다는 행동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만 강화된 자본 규제는 경기회복이 확실한 단계부터 시행하자는 게 G20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G20는 특히 상여금 지급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FSB 보상체계 기준을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융사 CEO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기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FSB의 새 보상체계 규정은 보장된 상여금의 1년 이상 지급 금지, 변동보상의 이연지급과 환수근거 설정,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이 약한 금융기관은 보상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이슈에 밀려 순위가 밀렸던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과다. 사실상 표류하는 유엔 대신 G20가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서서 기후변화 논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각종 금융 파생상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늦어도 2012년까지는 중앙청산소가 각국별로 설립될 예정이다.

그간 선진국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IMF, 세계은행(WB), 기타 다자간 국제협의체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MF의 쿼터조정 문제다. G20 정상선언문은 IMF 쿼터를 2011년까지 대표권이 과소평가된 신흥개도국으로 5퍼센트 이상 이전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솔직,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선 경제위기 이후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선에서 진행됐다.

동아DB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 독립적인 정책 감시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그러나 IMF개혁에 대해서는 쿼터 재배분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쿼터확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반면 선진국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신흥국으로의 쿼터 5퍼센트 이전이 이뤄지면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의 경우 다자간 개발은행의 최빈국 지원 기능을 대폭 확충해나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다자은행의 재원 확충도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아프리카개발은행 자본금 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자은행은 앞으로 식량안보, 인적자원 개발, 민간주도 성장 지원, 녹색성장 지원 등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 제고와 빈국 지원에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지분 역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퍼센트의 투표권이 이전될 계획이다.

기후변화 중요성 강조 · 도하어젠다 협상 타결 추진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 눈길 가는 부분은 각종 경제 이슈에 가려 순위가 밀렸던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난 봄 런던 정상회의 때만 해도 29개 합의문 항목 중 28번째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피츠버그 회의에선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보조금 감축방안을 발표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 회원국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론 여전히 유엔 차원의 기후변화 논의를 존중하지만 이면에는 사실상 표류하는 유엔 대신 G20가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설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기후변화 논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인 동시에 G20가 각종 중·장기 성장동력 이슈에도 관심이 높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G20 정상들은 이 밖에도 2010년 초에 미국 주도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용대책을 논의하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을 추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호주와 공동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공동 제안한 우리나라는 G20 차원의 '지속가능 협력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여기에 사실상 첫 정례 회의로 평가되는 내년 11월 회의를 유치해 앞으로 각종 국제 이슈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G

글 · 김태근(매일경제 경제부 기자)

"한국, IMF에서 발언권 커진다"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 문제가 해결됐다. IMF가 지난 10월 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24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제20차 회의를 열어 선진국 보유 쿼터 중 5퍼센트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키로 한 것이다. IMF는 회원국에 쿼터 개혁안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2011년 1월까지 쿼터 개혁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IMF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IMFC가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IMF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IMF 쿼터는 1.345 퍼센트로 경제력을 반영한 2.4퍼센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IMF와 더불어 세계은행(WB)의 지분 역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퍼센트 정도 투표권이 이전돼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점점 확대될 예정이다.

피츠버그 G20 정상선언문 주요 내용

1. 글로벌 거시경제정책 전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11월 출범
글로벌 불균형, 자산거품 해소 목적(IMF가 실무 담당)

2. 금융 규제 강화
은행 기본자본 확충 기준 2010년까지 마련
과도한 금융기관 CEO 보너스 규정 제한
장외 파생시장 계약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서 결제

3.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석유시장 투명성 증대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 총회에 대한 불신

4. IMF+ADB 등 다자개발은행 개혁
신흥경제권과 개도국에 3% 순투표권 이양
소규모 개도국 주주권 보장 방안 2010년까지 마련

정상회의 한국 유치 실무 주역 최희남 G20 기획단장

"국가브랜드 높이는 획기적 기회"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많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중에서 최희남 G20 기획단장을 빼놓을 수 없다. 최 단장을 만나 G20 정상회의의 유치 의미와 뒷이야기를 들었다.

최희남 단장은 유학생활을 했던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돼 감회가 남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G20 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최희남(49) 단장은 국제금융 전문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나라가 G20에서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세계 정상들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10월 8일 귀국한 그를 다음 날인 10월 9일 G20 기획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단장은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 기획단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진 지난해 12월만 해도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직원들이 한 달 넘게 작은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며 일해야 했다"고 회상하며 "그런 악조건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헌신과 열정으로 일궈낸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유치가 결정됐을 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최종 확정되는 순간의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들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세계가 우리나라를 더 이상 국제 경제체제의 변방이 아닌 중심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연도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제가 유학생활을 한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3차 정상회의가 피츠버그에서 개최된다고 했을 때, 제가 G20 기획단장을 맡게 된 건 운명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피

츠버그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돼 감격이 배가된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어떻게 계획된 것인가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차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정상회의가 미주, 유럽을 제외한 신흥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고, G20의 위상 제고에 따라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가브랜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가 결정되기까지 큰 고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적극적으로 정상회의 유치활동을 전개한 덕분에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 이미 우리나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의 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함에도 내년도 정상회의가 너무 많아 상반기 중 아시아지역에서의 회의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차기 정상회의는 캐나다에서 6월 G8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하는 대신,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피츠버그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영하여 공식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 확정 이후 우리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IMF 총회에 갔는데, 예정돼 있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WB총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스페인 재무장관 등과의 양자면담 이외에 현지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요청이 이어져 '배부른 고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하루를 정리해보면 몸은 힘들었지만, 확연히 달라진 우리의 위상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의 가장 큰 효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협력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국격 및 국가브랜드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글로벌 이슈에 있어 더 이상 'rule-taker'가 아닌 'rule-setter'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개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이해함으로써 상호관계가 돈독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갖는 선진경제로 거듭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으로의 준비가 중요한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보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의제 설정, 참가국 선정 및 합의 조정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회원국 협의 등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등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보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신흥국과 중진국 중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거는 회원국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해 준 국가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유치의 뒤에는 국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세계는 우리를 인정하고 다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1월 20개 국가의 정상과 IMF, WB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 등을 널리 알리고 세계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동아DB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의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참 모습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국제사회 한국 영향력 매우 커질 것"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함으로써 남들이 짜놓은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나라가 됐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내년 11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한다.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토론, 결론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돼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0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남들이 짜놓은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의 위치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기준을 만들면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는 지배그룹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동안 갖지 못했던 큰 국제적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이해관계 국제사회 반영 기회 높아져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규칙 제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을 세 가지로 전망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먼저 G20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국제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설령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영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우리나라는 출구전략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에서 G20

의장국과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G20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이슈를 주도해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G20기획단은 G20 정상회의 개최가 세계적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의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의 참모습을 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글로벌 이벤트인 데다 경제 규모 면에서 한국이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월드컵 못지않게 한국을 알리는 절대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뒤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과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회복을 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IMF 총재나 WB 총재는 한국이 잘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회의기간 내내 〈CNN〉〈BBC〉 등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 G20 회원국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전시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해외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장관은 또 "한국은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당했는데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런 약점을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 인식되고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한국 경제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올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행사와 비교해볼 수는 있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ASEM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 25명을 비롯해 4천6백여 명이 참석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했고, 수행인원이 7천1백여 명에 달했다.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했고 총 7천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내년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수행원,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칠 경우 1만8천~2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경제 파급효과 크고 부가적 효과 그보다 더 커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역대 회의보다 클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4천7백억~6천7백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는 1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와 2천6백억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G20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앞서 국내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보다 훨씬 큰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류상민 G20 기획과장은 "행사 중심이던 지난 세차례 회의와 달리 내년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장(場)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가적 효과는 G20 정상회의 유치의 직접 효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기간 내내 한국과 개최도시가 〈CNN〉〈BBC〉 등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 50억명에 이르는 G20 회원국 국민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전시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해외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또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

글·이혜련 기자

연합

내년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 정상회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언론이 본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새로운 조직이 경제 리더십을 장악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는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입증한 것이다. 해외 언론들은 "새로운 조직이 경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며 신흥국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G20에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6개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한국이 차기 개최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새로운 조직이 경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경제 문제를 조정하는 회의를 G8에서 G20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이는 선진 부국에서 신흥국가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AFP〉는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어느 나라가 G20에 참여하고 얼마나 자주 개최할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열리는 G20 회의가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신화통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들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개최지 선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신화통신〉은 "국제금융 구도에서 권력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9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G20가 G7이나 G8을 대체하는 글로벌 경제협의기구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패권이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국제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 위주 글로벌 리더십 공백 메워져"

국제통화기금(IMF) 존 립스키 수석부총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는 그간의 경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젠 역동적인 신흥국들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G8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정치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금융위기가 G20의 등장을 수년 정도 앞당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콜린 브래드포드 선임연구원은 "국제경제 협력과 다자간 결정구조, 글로벌 조정을 위한 새로운 구조가 마

9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련됐다”며 “G7, G8 위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 경제석학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9월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G20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G20를 ‘새로운 문제 해결사’라고 표현하며 “현재로서는 집단적인 대응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지난해 G20의 공조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아직까지 금융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한 회복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G20 체제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 | BUSINESS

GET 2 WEEKS FREE

Zoellick Favors Power for Treasury, Not Fed

By JON HILSENRATH and TOM BARKLEY

FT.com UK

New body takes on economic leadership

By Edward Luce in Pittsburgh

Published: September 26 2009 03:00 | Last updated: September 26 2009 03:00

Less than a year after George W. Bush cobbled together a meeting of the leading economies to deal with the global meltdown, the G20 was yesterday put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king.

In a statement the White House said the leaders had "reached a historic agreement to put the G20 at the centre of their efforts to work together to build a durable recovery while avoiding the financial fragilities that led to the crisis".

G20 sources said the new powers would not come from abolishing other groups such as the G7 or G8, but the G20 would focus on economic issues while the G8 would deal primarily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But observers yesterday argued that leaders' claim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G20 were exaggerated. While the G8 was often seen as too unwieldy to take effective decisions, the G20 is likely to prove even more painstaking. Yesterday's communiqué from Pittsburgh was verbose, and notably short on substance.

외신들은 G20가 G8을 대신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인터넷 뉴스 포털 환치우왕(環球網)은 “한국은 내년에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치, 특히 경제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9월 2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또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연설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참가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G8을 대신해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G20의 틀에서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터넷 뉴스 포털 〈환치우왕(環球網)〉은 9월 27일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를 보도했다. 환치우왕은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내년에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치, 특히 경제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뉴스 포털은 또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1차 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현상유지)을 제안해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고, 지난 4월 런던 2차 회의에서는 외환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국제 원칙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런 노력이 바탕에 깔려 G20 회의 개최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동아DB

이 대통령, 출구전략 국제 공조 필요성 역설

이 밖에도 외신들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AP〉, 〈로이터〉, 〈다우존스 뉴스와이어〉 등은 9월 26일 “캐나다와 함께 2010년 6월의 차기 G20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11월 또 한 차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가 G20 포럼 제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 “이 대통령은 세계 최강 국가들의 클럽인 G7이 대체로 협의체 역할을 해온 반면 G20는 특정한 구체적 조치를 채택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AFP〉도 9월 30일자 서울발 기사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쯤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각국 지도자들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성장지속 및 글로벌 경제 불균형 시정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의 유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구촌을 하나의 마을로 본다면, 마을 유지 그룹에 우리가 처음으로 끼었을 뿐 아니라 그 좌장 역할을 차지한 것”이라고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여준 리더십에 세계 정상들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우리 국민이 모두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덧붙였다. G

글 · 이혜련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의제 설정이 성공 열쇠 될 것”

국정감사 기간이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시기다. 그래서인지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와 관련해 야당인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은 축하와 칭찬을 하면서도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선영 의원은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 의제 개발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선영(53) 의원은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에 “정말 잘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관계자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잘했다는 칭찬은 남이 해주는 법인데,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을 보니 자화자찬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도 잊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실수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는 변방이었을지 몰라도 5천년 역사가 변방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만 하더라도 건국 이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뤘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개최했고요. 이런 성과와 국민의 저력이 어우러져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갑자기 변방에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을 무조건 폄훼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더군요.”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와 관련해 정부에 충고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하는 정체성 혼동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선도하는 국가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라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요. 성공 개최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가 좋지 않으면 세계 정상들이 올 리가 없죠. 또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화자찬보다는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의제 개발과 성공적 준비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G20 정상회의를 어느 도시에서 하느냐를 놓고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회의 장소를 어디로 할지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는 모두 대도시가 아닌 의미 있는 도시에서 열렸어요. 우리도 외국 정상들이 와서 ‘아, 이게 바로 코리아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열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는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품격을 올리자, 국가브랜드를 높이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조급한 외교, 품격 없는 외교를 하고 있지는 않나 우려가 됩니다.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외교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과거 정부들 역시 모두 실용외교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걸 함부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왜냐 하면 ‘나는 당신네 주머니에 든 돈을 뺏기 위해 외교를 한다’고 대놓고 말하면 좋아할 나라는 없으니까요. 속내는 그렇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말해야 하는 법입니다. 앞으로 품격을 갖추면서도 실리를 찾는 외교를 해주기 바랍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세계경제 중심국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쾌거"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선도적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국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하(63)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 길이 빛날 쾌거"라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황 의원은 또한 "우리 정부의 동맹강화 외교, 국제사회와의 공조 외교를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원께서 보시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의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외교사에 길이 빛날 쾌거입니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며, 한국이 주변국에서 세계경제의 중심국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의 가장 큰 의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이후 또 한 번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두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됐듯이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 개최가 5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같은 유무형의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가 가져올 문제점은 없을까요.

국내 도시 간에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들 간에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우려됩니다. 조속히 개최도시를 결정해 이 같은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개최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외교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야당과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동맹강화 외교, 국제사회와의 공조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변화의 결과가 G20 정상회의 유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각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국익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초당적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가 북핵 폐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외교 목표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해 일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황진하 의원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 협조를 기대했다.

청년 안중근,
세기를 넘어 다시 태어나다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손도장 프로젝트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의거를 일으킨 지 1백년이 되는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을 기념해 3만여 국민이 참여한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와 6천여 명이 참가한 '안중근 의사 얼굴 형상 완성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안중근 의사 순국 98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역사음악 어린이 합창단'이 태극기를 들고 합창하고 있다.

"전국을 돌면서 안중근 의사 손도장 찍기 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어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 의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알릴 필요성을 느꼈고, 국민들이 행사에 응원을 많이 해줘서 힘이 났습니다."(안효춘 씨 · 한국외국어대 3학년)

"안중근 의사 의거 후 1백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뜻깊고,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상미 씨 · 서울 묵2동)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열린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의 손도장 찍기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시민의 말이다.

안중근(安重根 · 1879~1910) 의사의 하얼빈 의거 1백주년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3일부터 넉 달 가까이 진행한 이 프로젝트 기간 중 흰색 천에 검은색 손도장을 찍은 국민은 3만여 명. 그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시민들과 함께 손도장을 찍은 주요 인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김주현 독립기념관장, 안응모 사단법인 안중근 의사 숭모회 이사장, 함세웅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중근 의사의 후손(육촌 손자)인 안기선 씨 등이다.

내국인 · 해외 동포 · 일본인 간수 후손까지 동참

10월 26일에는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3만여 명의 손도장을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모양으로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가로 30미터, 세로 50미터)이 KT 광화문 지사 외벽에 걸린다. 같은 날 옆 건물인 문화체육관광부 외벽에는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통해 국민들이 올린 얼굴 사진 6천여 장을 모자이크해 안중근 의사의 얼굴로 형상화한 현수막(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이 내걸린다.

이 두 가지 현수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중근 의사 의거 1백 주년을 기념해 벌인 온 · 오프라인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현수막은 2주일간 전시된 후 국가보훈처에 기증되며, 2010년 새로 개관하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영구 전시될 예정이다.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의거

를 일으킨 지 1백 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상하이(上海) 임시 정부 대한독립단 소속의 안 의사가 일본인으로 가장해 러시아 군의 군례를 받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전 조선통감부 통감이자 당시 추밀원 의장)를 사살하고,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 등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하얼빈 의거일'이다.

이에 앞서 안 의사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 1906년 의병운동에 참가했다. 1909년 3월 안 의사는 동지 11명과 손가락을 함께 잘라 구국을 맹세하며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했고, 그해 10월 26일 하얼빈 의거를 일으킨 것이다. 의거 직후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旅順) 감옥에 수감됐고, 이듬해 3월 일제가 사형을 집행해 순국했다.

정경택 기자

9월 27일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 행사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안응모 안중근 의사 숭모회 이사장, 함세웅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주현 독립기념관장, 안중근 의사의 후손 안기선 씨.

6천여 명 얼굴 사진 모아 안 의사 얼굴 형상화도

"(안 의사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진 인물이 절실하며, 안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손도장을 모으는 이런 행사가 더욱 뜻깊습니다."

9월 27일 손도장 찍기 행사에 참여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사 기획 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전국을 돌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손도장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35) 성신여대 객원교수는 "손도장 프로젝트는 국내외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손도장 프로젝트는 탤런트 최수종 씨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를 돌아 백령도, 독도, 민통선 등지에서 손도장을 받았다. 또 뉴욕 교민과 해외 파병지 레바논 부대원들도 뜻깊은 행사에 함께했다.

손도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민 3만여 명의 면면도 다채롭다. 첫 손도장의 주인공은 연극 '대한국인 안중근'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탤런트 최수종 씨. 6월 3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최 씨가 첫 손도장을 찍은 후 흰색 천은 대전, 광주 등 6개 광역시는 물론 백령도, 독도, 마라도, 민통선 등지를 순례했다. 해외 각지의 교포들도 함께했다. 안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하얼빈, 다롄의 뤼순 감옥 등에 들렀는가 하면, 1981년부터 매년 안 의사의 추모 법회를 열고 있는 일본 도쿄 인근의 대림사 주지 사이토 다이켄(齊藤泰彦), 안 의사의 뤼순감옥 투옥 당시 일본인 간수의 유족도 손도장을 찍었다. 미국 뉴욕의 추석맞이 민속잔치 행사장과 한국군의 해외 파병지인 레바논 부대 등에서도 내외국인들이 참여, 빼곡하게 손도장을 찍었다.

한편 9월 2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계속된 '안중근, 2009년의 대한민국을 만나다'라는 온라인 이벤트(an100years.korea. kr)에도 국민들의 참여가 봇물을 이뤘다. '모아주세요! 안중근 의사가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이벤트 코너에는 6천여 명이 자신의 얼굴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했다. 이 얼굴 사진들은 10월 26일 안 의사의 얼굴 형상 현수막 제작에 활용되며, 응원 메시지는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중근 의사 퀴즈 풀기' '메신저에 안중근 의사 이모티콘 달기' 등도 국민 참여로 진행된 온라인 행사들이다.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에서도 안중근 의사 의거 1백 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10월 26일 오전 10시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각계 인사, 광복회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거 1백 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같은 시각에 중국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에서는 독립기념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린다.

또한 국가보훈처 어린이 사이트 보훈광장(kids.mpva.go.kr)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중근 의사 애니메이션 퀴즈, UCC 올리기, 게임 등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꾸러기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독립기념관에서는 10월 내내 안중근 의사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올해 일본 히로시마의 한 사찰에서 반환된 안 의사의 유명한 친필 유묵 '독립(獨立)' 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전시 중이다.

이 밖에도 안중근 의사 숭모회 주관으로 10월 22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학자 10명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년 안중근, 그가 1백 년의 시간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 의사 의거 기념 온라인 이벤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귀처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나라사랑의 뜻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 찾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진정한 리더는 전통을 알고 올바른 역사적 사명 가진 사람”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9월 18일부터 2박3일간 학생들과 함께 1백 년 전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역사의 현장인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다녀왔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비가 세워진 하얼빈 조린공원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심화진 총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학생들. 휠체어에 앉은 이가 안 의사의 조카며느리 안노길 할머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리가 불과 3, 4미터 될까요.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책상머리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귀한 체험이었죠.”

심화진(53) 성신여대 총장은 9월 18일부터 2박3일간 학생 22명, 교직원 7명 등 40여 명과 함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 현장에 다녀왔다. 안중근 의사 의거 1백 주년을 앞두고 안 의사의 의거 현장을 답사한 것이다.

심 총장은 특히 답사기간 내내 휠체어를 탄 채 함께한 안노길(96)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안 할머니는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안 의사의 사촌동생인 홍근(洪根) 씨 3남의 부인이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사회주의 중국 국가 수립 이후 하얼빈역 등 공공장소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안 의사의 행적을 알리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적성 국가의 국기를 흔들었다는 사유 등 반혁명죄로 20년의 감옥 생활과 20년의 반강제 노동을 했다.

“할머니가 하얼빈 역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정신이 간혹 오락가락하시는데도 당숙인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떠올리셨나 봐요.”

하얼빈역에서 심 총장이 안중근 의사 손도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손도장을 찍으실 것을 권하자 안 할머니는 화를 냈다. “안 의사 말고는 아무도 손도장을 찍을 자격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빗속에서 애국가를 부르자 할머니는 3절까지 따라 불렀다. 할머니와 심 총장,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눈물을 흘린 순간이었다.

심 총장의 하얼빈 탐방은 일회성 돌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성신여대는 올해 초부터 ‘역사현장 체험 프로젝트’를 위해 네 차례 답사를 다녀왔다.

지난 2월에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현장 등 일본 탐방(1차), 4월에는 중국 상하이와 충칭의 임시정부 등 중국 탐방(2차), 5월에는 독도 탐방(3차)을 다녀왔다. 독도 탐방 당시 파도가 높아 독도 접안에는 실패했지만, 독도 주민인 김성도 이장 부부에게 기념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하얼빈 탐방은 역사현장 체험 프로젝트 네 번째 행사로 안 의사 의거 1백 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성신여대 역사현장 체험 네 번째 행사로 하얼빈 방문

심 총장은 성신여대에서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글로벌 리더에게 무엇보다 역사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우리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2007년 취임한 심 총장은 성신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06년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을 인수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2011년 문을 열 ‘운정그린캠퍼스’를 착공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초 성신여대 신입생 환영회 때는 학생들 앞에서 원더걸스의 노바디 춤을 춰 환호를 받았고, 그 덕에 네이버 인기 검색순위 2위에까지 오르는 등 유명세도 탔다.

“대학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잘돼야 학교가 잘되고, 그래야 저를 비롯한 교직원도 잘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면 그르칠 것이 없습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대북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 대일외고 허해성 군

"북한 사람들의 한국 이해 돕고 싶어요"

고3 학생이 만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대북 라디오방송 전파를 탔다. '열린북한방송'이 운영하는 '라디오 남북친구'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일외고 3학년 허해성 군이 제작한 프로그램 '영화 속으로의 여행'을 허 군의 목소리로 내보냈다.

북한 주민을 위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고3 수험생 허해성 군.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서울 대일외고 3학년 허해성(18) 군을 지난 9월 대일외고 교정에서 만났다. "축하한다"는 말에 허 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라디오 남북친구'에 매일 10분씩 5차례나 방송을 내보낸 사람치곤 수줍음이 많았다.

허 군은 "해외근무를 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가 프랑스 파리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인근에 있던 북한 무역관을 지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같은 민족에게 무섭다는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참 서글펐다"고 회상했다.

허 군은 최근 탈북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하나원이 실시하는 탈북자 대상 한국문화 교육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을 알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열린북한방송'에서 시민참여 프로젝트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열린북한방송은 2005년 12월 민간 대북방송 제1호로 개국한 이래 2006년 상반기까지는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의 프로그램 송출을 대행하는 대북방송 중계 사업자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2006년 말 방송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하고 자체 제작한 방송과 외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방송을 북한을 향해 내보내고 있다.

재미가 있고 시대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매체여서 영화를 소재로 택했다는 허 군은 자신의 프로그램 '영화 속으로의 여행'을 통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 5편에 담긴 한국 현대사를 북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로맨스 빠빠〉(1960년대) 〈고교 얄개〉(70년대) 〈공포의 외인구단〉(80년대) 〈서편제〉(90년대) 〈괴물〉(2000년대) 등이 그가 선정한 영화들이다.

허 군은 〈로맨스 빠빠〉는 전쟁의 상흔 속에서 피어난 가족 간의 사랑과 낭만, 〈고교 얄개〉는 친구 대신 우유 배달을 해주고 필기한 공책을 함께 보며 공부하는 모습에서 협동을 강조한 새마을운동 정신이 돋보였고, 〈공포의 외인구단〉은 역경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의 노력과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 등이 1980년대 '3S(Sex, Sports, Screen)' 정책이 반영된 시대 모습을 잘 대변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에피소드 하나. 자신의 이름 해성은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 오해성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붙여준 것이라고 한다.

눈이 먼 딸이 한(恨)을 극복하면서 명창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서편제〉는 한이 남북이 공감하는 우리 민족 정서여서 선정했다고 한다.

시대 대표하는 영화 5편 골라 한국의 역사 알려줘

허 군은 "2학년 때 YMCA에서 진행한 재외동포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에 도우미로 참여하면서 세대를 거쳐도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았다"며 북한 주민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괴물〉은 환경문제와 함께 한국영화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 중 하나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 속으로의 여행'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허 군은 초등학교 시절 외국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탈북자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인터뷰가 끝나자 친구에게 전화해 "부대찌개 시켜줘"라며 식당으로 향하는 허 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야자(야간자습) 하려면 잘 먹어야 하거든요." 영락없는 고3 수험생이었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이지애 아나운서는 "홍보대사로서 법제처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

"알쏭달쏭 법률용어 알기 쉽게 다시 써요"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다.

안녕하세요? 법제처 홍보대사 KBS 이지애 아나운서입니다. 어려운 법령을 쉽게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법제처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로서 평소에 바른 말을 제대로 쓰고자 노력한 덕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으로 제안해 온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오천만의 아이디어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법제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도 이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법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니 홍보대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반갑습니다. 평소 법을 접할 기회

는 교통법규 정도밖에 없지만 왠지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라기보다 처벌이나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을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할 일은 법제처에서 진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법제처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되어 60년 넘게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해온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하 '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하면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해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령은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작 법령의 주인인 국민은 법률로부터 소외돼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률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줄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법제처는 2000년부터 한문으로 된 법률을 전문 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할 때 모두 한글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한글 전용'을, 2006년부터는 현재 사용 중인 어렵고 복잡한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알법'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법령 속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다듬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알법'은 법령 속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다듬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2010년까지 1천2백여 건의 현행 법률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6백39개의 법률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3백39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포함해 3천여 개의 하위 법령도 모두 정비하게 됩니다.

특히 '알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국민이 직접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하고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알법'을 통해 쉽게 고쳐진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어들을 우리말로 바꾼 것입니다. 도로법에서 사용하던 '가도(假道)'는 '임시도로'로, 약사법에서 사용하던 '수불현황'을 '거래현황'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암거'는 '지하도랑'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대하다'는 '다시 대여하다'로 고쳤으며 이 밖에 많은 법령에서 사용되던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속임수'로, '해태하다'를 '게을리하다'로 바꿨습니다.

고유 의미 변질 없게 숙련된 법제전문가 노력 기울여

국민들의 문의를 통해 정비한 것도 있습니다. 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의 소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그 지원 대상을 농작물을 대파하는 경우(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입식하는 경우(어린 가축의 입식비) 등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서를 받은 농민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인 '입식'과 '대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문의를 해오면서 '입식(入殖)'은 '가축을 새로 구입하여 기르다'로, '대파(代播)'는 '다시 심다'로 용어를 수정해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 제78조 제1항 제6호에는 '인육으로 오손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도록 한다'는데 그 뜻은 '(도장 등의) 인주로 더럽혀졌으니…' 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는 반장선거를 하던 학생들이 개표 과정에서 인주로 더럽혀진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국민투표법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쉬운 말로 바꿀 경우 편하지만 혹시 법률용어의 고유한 의미가 퇴색되거나 오히려 의미가 바뀌어 혼란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생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분야에서 사용돼왔습니다. 법률용어를 섣부르게 고치다 보면 입법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해석상 혼란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법'은 기존의 법적 의미뿐 아니라 법령을 해석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숙련된 법제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법' 외에도 법제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법제처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법령검색 문의 Tel 02-2100-2580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 동사무소장들의 수다

"한국생활 노하우 우리가 알려드려요"

서울 시내 5곳에 운영 중인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생활의 노하우와 지혜를 터득한 5명의 외국인 동장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3층에서 서울 시내 외국인 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 시내 4개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센터장과 서울 글로벌센터장이다. '서울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해주는 사랑방 구실을 하고, 한국어 강좌 등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일종의 외국인 동사무소다.

현재 서울에는 지난해 1월 생긴 마포구 연남동(중국인)을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일본인), 용산구 한남·이태원동, 서초구 서래마을(프랑스인), 강남구 역삼동 등 5곳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마련돼 있다. 센터장(동장)은 모두 한국에 4,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이다.

외국인 동사무소장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흥미로우면서도 정곡을 찔렀다. 서울처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동네가 없으며,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린다는 말부터 글로벌 한국, 글로벌 서울을 칭찬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종차별에서부터 영주권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예리하게 지적했다.

TV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로 유명해진 이탈리아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27) 씨는 매일 경기 안양 집에서 지하철을

조선일보

'외국인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서울 시내 4개 글로벌빌리지센터장들과 서울 글로벌센터장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왼쪽부터 앨런 팀블럭 서울 글로벌센터장, 유암 연남센터장,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역삼센터장, 이시하라 유키코 이촌센터장, 폴 핫세 한남·이태원센터장.

타고 서울 역삼동으로 출근한다. 그가 출근하는 곳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상담 처리해주고 한국어 강좌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나 씨는 "이곳에서 한국을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외국인들을 도울 수도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제공

한남·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제공

센터장들은 인터넷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촌 센터장인 일본인 이시하라 유키코(37) 씨는 아파트 수도나 가스, 화장실이 고장났다며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한다. 지난 2004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2년 동안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한 이시하라 씨는 "이촌동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됐나 보다"며 웃었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행지를 묻고 예약하는 방법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국인 결혼이민자들의 문의가 많은 연남동 센터는 비자문제와 귀화 절차, 이혼 상담이 주요 상담 내용이다. 센터장인 중국인 유암(36) 씨는 "우리 지역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결혼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귀화 절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국인 남편들과 싸우고 이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해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은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자체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남·이태원 센터장인 캐나다인 폴 핫세(32) 씨는 "이태원에는 사업하는 사람부터 공부하러 온 사람까지 문화가 다른 다양한 외국인이 모여 살아 통역을 원하는 사람이 특히 많다"며 "한국 행정 시스템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부동산 계약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인 자신들이 다른 외국인을 돕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보람도 다양하다. 지난 4월 연남 센터에 한 20대 중국 여성이 울면서 들어왔다. 신혼 초기 35살인 한국인 남편은 퇴근도 늦게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중국과는 달리 남자가 집안일을 거의 돕지 않는 환경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부모와의 갈등까지 겹쳐 결국 이혼서류에 서명했다. 이혼 숙려기간에 센터를 찾아온 이 여성과 상담을 마친 유암 씨는 한국인 남편을 센터로 불러서 달랬다. 결국 이들 부부는 이혼을 철회하고 다시 결합해 지금은 아이까지 가졌다고 한다.

"결혼·투자 이외 한국 영주권 취득 너무 힘들어"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크리스티나 씨는 한국인의 심리와 습관, 예절 등에 대해 자신이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했다. 크리스티나 씨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 행동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조언해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센터장인 이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한 지 4년이 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이 쏟아냈다. 서울 글로벌센터장인 영국인 앨런 팀블릭(66) 씨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정말 많은데도 결혼이나 투자가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은 꼭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 행동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조언해줄 수 있어서 좋다."

크리스티나 씨는 "한번은 아랍계 외국인이 센터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곳이 있는지 감격해하더라"며 "그 사람은 지금까지 피부색이나 겉모습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무시당해왔는데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핫세 씨는 "글로벌 서울,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더라도 한국 전통문화는 살려놔야 하는데 종로 피맛골이 사라지거나 서울 시내 한옥도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G

역삼 센터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센터장 크리스티나 씨는 "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단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온다"며 "또 쇼핑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쓸 수 있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등 한국생활의 지혜를 묻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글·곽창렬(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

‘세계 슬로 걷기 축제’ 홍보대사 개그맨 박준형

관동8경 따라 여유를 즐겨보세요

10월 18일부터 6박7일간 ‘관동별곡 8백리 세계 슬로 걷기 축제 2009’가 열린다. 김성경 아나운서, 동료 개그맨 최국 씨와 함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박준형 씨는 “이번 축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축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동아DB

송강 정철 선생의 뜻을 기려 ‘관동별곡 8백리 세계 슬로 걷기 축제’에 참가하는 박준형 씨.

관동별곡 8백리 세계 슬로 걷기 축제는 어떤 행사인가요.

송강 정철(鄭澈) 선생이 저술한 〈관동별곡〉의 주요 무대인 동해안 8백리 길을 역사 · 문화 탐방 코스로 만들어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우리의 ‘관동 8경’ 해안길을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처럼 국제적인 걷기 명소로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세계걷기운동본부, 강원 고성군 학송회(학과 소나무를 사랑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모임)가 힘을 모은 것이죠.

축제 기간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7일로 전야제(17일)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단순히 길을 걷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역사, 학술 연구 등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서 ‘스토리가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6박7일이면 비교적 긴 일정인데, 구체적인 코스를 소개한다면.

이번 축제는 강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이 함께합니다. 관동8경 중 강원도에 있는 고성 청간정을 시작으로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과 월송정을 잇는 해안길 2백 킬로미터 구간에서 벌어지죠.

전체 코스는 7개 구간으로 나눠 매일 한 구간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 구간을 완보하는 ‘마스터스 부문’, 전체 코스 중 1개 구간(약 30킬로미터)만 선택해서 걷는 ‘마니아 부문’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엄선한 추천 명소 코스(5킬로미터)를 걷는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인의 일정과 체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답니다.

걷기 외에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까.

전야제와 청소년 시조 백일장, 학춤 공연과 학춤 따라 배우기, 6개 시군별로 벌이는 총 6회의 한국 전통문화 퍼포먼스, 동해와 강릉에서 펼쳐지는 슬로푸드 시식회 등이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개그맨들과 함께하는 결식어린이 돕기 사랑의 걷기 대회,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개그 콘서트,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하는 멘터링 걷기 대회, 1기업 1구간 가꾸기 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 초청 ‘희망의 콘서트’,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8백리 길 청소년 답사단 등도 구상 중입니다.

일회적인 행사로 끝내기엔 아까운 문화 이벤트인데요.

세계걷기운동본부는 이번 걷기 축제에 맞춰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6개 시군은 이정표를 설치해 대회가 끝난 뒤에도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관동8경 중 경북 울진의 월송정과 망양정 코스는 내년 행사에 추가할 예정이고요. 북한에 있는 총석정과 삼일포 코스까지 이어진다면 '관동별곡 8백리 코스'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또 지난 6월 23일 발족한 '송강 정철 포럼'은 앞으로 서울, 전남,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 흩어져 있는 송강의 문화적 발자취를 연결해서 전국적인 '송강 정철 문화 네트워크'를 결성할 겁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학술조사, 논문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격상시킬 '송강 정철 문화운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참가 동기를 밝힌다면.

송강 선생은 유년 시절 을사사화로 집안이 몰락해서 아버지를 따라 귀양살이를 하는 등 소년기는 불우하셨지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학문에 전념해 과거에 급제하고 청렴한 관직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문학적 성취뿐 아니라 굳은 의지로 인생 역경을 이겨낸 분이라는 점에서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지요.

'훈민가'라는 시조 아시죠?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를 다 하여라'로 시작되는 송강 선생의 작품입니다. 경로 효도 사상이 깃든 많은 시조가 송강 선생의 손에서 빚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정신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된 거지요.

이번 축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걸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입니다. 국민들께 놓치지 말고 꼭 경험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참가해야지요. 그럼 독자 여러분, 관동 8경에서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세계걷기운동본부 www.8811.or.kr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아나운서 김성경, 개그맨 최국과 박준형(오른쪽에서 두번째).

송강 정철도 감탄한 동해 8백리

"송강 정철은 한문으로 시를 짓는 것이 지배계층의 문화적 특권으로 인식되던 조선시대에 한글 가사를 남긴 당대 문학의 혁명가였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대문호다."

송강 정철의 13대 후손인 정홍택 송강포럼 고문의 말처럼 한국 문학에서 송강의 의미는 매우 크다. 그는 평생 4편의 가사와 80여 수의 시조, 7백60여 수의 한시를 남겼다. 그중 몇 작품은 고등학교 교재에 수록돼 우리 모두에게 친숙하다.

특히 그가 1580년 45세 나이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고성의 금강산에서부터 월송정과 망양정이 위치한 경북 울진까지 직접 답사하여 집필한 <관동별곡>은 조선 가사문학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문화적 향기가 배어 있는 관동8경 길은 신라의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했던 곳으로 화랑들에 얽힌 이야기가 숨어 있고 고려시대 공양왕 유적,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의 문학적 모태이기도 하다. 수로부인에게 절벽의 꽃을 꺾어 바친 '헌화가'의 배경 역시 관동8경이다.

수많은 시인과 묵객이 다녀간 관동 제1의 누각 죽서루.

강원도 양양 낙산 위쪽에서 내려다본 낙산사 보타전과 보타락.

휴먼다큐 '해바라기' 목소리 기부하는 가수 강수지

"삶의 화두는 사랑…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불혹을 즈음한 세대에게 영원한 소녀로 추억되는 '보랏빛 향기'의 가수 강수지가
여전히 청초한 자신의 목소리를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가수 강수지(40)가 '보랏빛 향기'를 부른 지 벌써 19년이 흘렀다. 1990년 이후 청초한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그가 이젠 기부천사로 활약하고 있다.

9월, 강수지는 케이블 채널 MBC 드라마넷 휴먼다큐 프로그램인 '해바라기'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난치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이 '도네이션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기부했다. 목소리 기부란 스타가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에 참여해 해당 출연료를 사회단체에 기부해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봉사에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스타들의 목소리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강수지는 목소리 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목소리 기부 섭외가 오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사의 섭외에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 그는 뇌졸중에 걸린 어머니의 간병을 맡은 열세 살 김영은 양의 사연을 감동 어린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방송 후 강수지는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서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세상은 늘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소리 기부 외에도 그는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은 돈으로 사회봉사를 하며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 어린이 구호기관인 컨패션에서 아이들 후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 기부는 앞으로 그의 삶의 화두이기도 하다.

"작은 도움이라도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강수지는 "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도울 수 있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수로서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다는 것에 흐뭇해했다. "앞으로도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는 편안한 분위기를 자신이 지닌 목소리의 매력으로 꼽았다.

강수지의 목소리는 추억을 부르는 음색이기도 하다. 발라드계의 '요정'으로 불리며 '보랏빛 향기' 외에도 '혼자만의 겨울' '흩어진 나날들' 'I Miss You' '흔들리지 마' 등 수많은 발라드 히트곡을 남겼다.

올해 1월에는 자신이 노랫말을 쓴 '보랏빛 향기'를 작곡했던 가수 윤상과 함께 신곡 '잊으라니…'를 발표해 둘의 '재결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0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한 그가 2002년 이후 7년 만에 대중 앞에 선보인 디지털 싱글 앨범이었다. 특히 새로운 탱고 장르라서 기분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는 '보랏빛 향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기는 힘들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음악적으로 더 성숙해진 자신을 보이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현재도 '잊으라니…' 신곡 활동과 함께 곧 새롭게 발매될 디지털 싱글 앨범을 녹음하는 중이다.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서 부끄럽지만 세상은 늘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도울 수 있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가수로서의 본업을 사랑한다. "가수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새로운 곡을 노래할 때면 언제나 떨린다"며 여전히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강수지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가사를 쓰기로도 유명했는데, "지금은 20대만큼 순수한 가사가 안 나온다. 일기는 꾸준히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산문집을 내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꿈꾸고 노래하는 덕분일까? 그는 1990년대 스타들 중에서도 최고의 '동안(童顔)'으로 젊음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그대로 있고 팬들만 나이를 먹어가는 것만 같다.

스타로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 그는 "세월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늘 젊다"고 답했다. 항상 더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자연과 함께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란다.

동아DB

'보랏빛 향기'의 가수 강수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기부하며 대중의 벗으로, 어려운 이웃의 친구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저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를 롤 모델로 삼고 존경해온 강수지는 그가 알려준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러브 닥터'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이타적인 삶과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준 사랑 전도사다. 강수지는 지인들에게 그의 책을 선물하기도 한다. '무소유'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늘 생각하고 다시 읽는다고 한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로를 건네는 '가스펠 콘서트'를 하는 게 현재의 목표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꿈이기도 하다.

"가스펠 음반을 내거나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가스펠 콘서트를 하는 게 꿈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슬퍼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강수지는 데뷔곡 '보랏빛 향기'의 노랫말처럼 "길을 걷다 마주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의 모습으로, 꾸준히 팬들에게 사랑을 건네고 있다. 이젠 '소녀'보다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는 데뷔 20년을 앞둔 지금, 처음 모습 그대로 청초하고 맑은 음성과 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연스레 다가서는 중이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육군 상위 1% '특급전사' 나가신다

병영 생활 활력소 '특급전사제도' 천정명 등 연예인 합격 잇따라

'강한 전사,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육군 특급전사제도가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다. 특급전사가 되면 지휘관 표창, 포상 휴가, 조기 진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올해는 특히 천정명, 강타 등 연예인 출신 특급전사가 줄줄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당히 군에 입대한 연예인 출신 육군 병사들이 잇따라 '특급전사'로 거듭나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람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 출신의 천정명(29) 병장이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활약 중인 천 병장은 지난 4월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급전사의 영예를 안았으며, 8사단 수색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안칠현(30 · 가수 · 예명 강타) 병장과 윤진영(27 · 개그맨) 일병이 6월과 7월에 그 뒤를 이었다.

특급전사 시험에서 천 병장은 선발 기준인 윗몸일으키기 82회 이상, 2분 안에 팔굽혀 펴기 72회 이상을 거뜬히 해냈다. 이뿐만 아니라 5분 48초 이내에 끝내야 하는 1.5킬로미터 구보를 5분 30초 만에 마쳤다. 20발 중 18발을 표적에 명중시켜야 하는 K-2 소총 사격 테스트에서도 18발을 맞힘으로써 무난히 합격했다.

하지만 천 병장이 연예인 1호 특급전사가 되기까지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 천 병장은 "이전에도 도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떨어졌다. 처음에는 특급전사 시험을 쉽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만큼 어렵게 얻은 영광이기에 특급전사가 된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신병교육대 내에서 호랑이 조교로 통하는 그는 11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사격 20발을 모두 명중시키는 진기록을 세운 안 병장은 "연예인이지만 충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특급전사 도전 동기를 밝혔다. 첫 사격에서 20발 중 18발을 맞힌 윤 일병은 "특급전사가 돼 동기들보다 한 달 빨리 상병으로 진급하는 특전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충만감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천정명 병장은 지난 4월 '연예인 출신 특급전사 1호'가 됐다.

육군 제공

가수 출신 안칠현(왼쪽) 병장과 개그맨 출신 윤진영 일병은 지난 6월과 7월에 각기 특급전사 대열에 합류했다.

"진급 특전 · 포상 휴가도 좋지만 충만감이 더 커"

이처럼 육군 특급전사 제도는 군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특급전사가 되면 지휘관 표창과 포상 휴가, 조기 진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급전사를 다수 배출하기 위한 부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병사뿐 아니라 지휘관, 여군, 비전투병 중에서도 특급전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전체 병사 중 1퍼센트가 특급전사로 선정되고 있다고 한다.

예부터 일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특급전사를 선발하기는 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된 것은 2007년이다. 당시 제1야전군사령관이던 김태영 현 국방부 장관이 특급전사 육성과 선발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면서부터다. '강한 전사, 강한 군대 육성' 이 군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올 들어 더욱 확산된 특급전사 붐은 우리 군 내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훈련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문무대왕비 상단부 발견한 수도검침원 최순득·향토사학자 김윤근

“수돗가 황금빛 돌 이거다 싶었죠”

2백 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대왕비 윗부분이 발견됐다. 7세기 후반 신라 역사가 기록된 귀중한 비석 조각을 발견한 사람은 여성 수도검침원과 향토사학자였다. 우리 유물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사랑은 소중한 역사의 한 조각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돌에서 황금빛이 났어요.” 지난해 가을 유난히 날씨 좋던 날 최순득(45·경주시 성건동) 씨는 경주시 동부동 어느 오래 된 주택으로 수도 검침을 나갔다. 무거운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과 한참 씨름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집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전날 내린 비로 하늘은 더 없이 맑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을 피해 얼굴을 돌리는 순간 수돗가에서 밝게 빛나는 황금색 돌이 눈에 들어왔다.

“수돗가에 있어선 안 되는 돌 같은데, 왜 여기 놓였을까?”

최 씨는 “그 돌을 보는 순간 멍한 느낌으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했다.

4년째 수도검침원 생활을 하는 최 씨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나 바쁜 일과로 곧 기억의 저편에 묻혔다.

이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올해 9월 1일 밤, 그가 다니는 경주 한림야간중고등학교 수업 도중이었다. 어려운 집안형편 탓에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것이 평생 한이었던 최 씨는 올봄부터 야간학교에서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날 수업은 김윤근(신라문화동인회 부회장) 교장의 ‘향토문화’ 보충수업이었다. 김 교장은 최근 포항에서 발견된 신라 최고의 비석인 중성리비 이야기와 수많은 비석, 명문기와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비석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심히 관찰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야간학교 사제지간… “문화재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수업을 듣고 있던 최 씨에게 지난 가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혹시 하는 마음에 수업 후 김 교장에게 알렸다.

“제가 ‘경주문화원 옆 주택가에서 본 황금색 돌에 한자가 쓰여 있고 글자 간에 줄이 그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교장 선생님이 놀라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김 교장도 이날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통일신라시대 유행한 비문은 애들 공책처럼 줄을 그은 뒤 글을 새겼다. 태종무열왕비도, 무열왕의 둘째아들인 김인문의 비도 그랬다. 최순득 씨의 이야기를 듣고 뒷머리를 호되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동아DB

문무대왕비 상단부(위)를 발견한 여성 수도검침원 최순득(왼쪽) 씨와 김윤근 한림야학 교장.

최 씨와 김 교장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국립경주박물관에 연락한 뒤 동부동 그 주택으로 달려갔다.

예상대로였다. 높이 66센티미터, 너비 40센티미터 크기의 이 비석에는 ‘十五代祖星○○’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측은 문무대왕비 상단부라고 판정했다. 문무대왕비는 신라 건국과 태종무열왕의 치적을 비롯해 백제, 고구려, 당나라 격퇴 사실 등 7세기 후반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학계의 귀중한 자료다. 조선시대 발견됐던 문무대왕비가 다시 사라져버린 후 2백 년 만인 1961년 하단부가 발견됐고,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상단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주부,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 바쁜 생활을 보내면서 수도검침원 생활에도 열심인 최 씨는 “이번 문무대왕비 발견을 계기로 문화재 공부에 더욱 열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무대왕비 발견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덕에 문무대왕이 저를 선택해준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하다”고 스스로 대견해했다. G

글 · 이채수(매일신문 사회2부 기자)

대한민국 신종플루 극복기

"손 씻는 습관 생겨 면역력 강해졌다"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사망했다. 하지만 손 씻기 습관이 널리 퍼지면서 아폴로눈병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등 이번 신종플루 유행으로 우리 사회가 얻은 것도 없지 않다.

신종플루 예방법으로 가장 많이 권장되는 것이 손 씻기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손을 자주 씻는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 손 씻기가 습관화된다면 올 가을과 겨울에 계절성 감기나 독감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계절성 감기와 독감 예방도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손을 자주 씻으면 다른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아폴로눈병 발병률이 올 가을에는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다.

신종플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스크는 감염자가 착용하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 일본의 경우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정부 질병 대응전략 수준 높이는 계기 돼

기침 예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고무적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거나, 한쪽 팔을 들어 옷자락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또한 술잔을 돌리는 행태, 여러 명이 같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식습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천식 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면역 저하자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만인 사람들도 신종플루 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비만은 천식이나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WHO는 앞으로 비만이나 당뇨를 가진 어린이나 청장년층에서 사망자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감염병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

신종플루 유행 초기에는 정부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범했지만, 이를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한다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신종플루 사례를 분석해 국민들이 새로운 질병에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Risk Communication)할 수 있는 방법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에 대비한 의약품 개발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시대에 대비해 신약 개발의 디딤돌이 되는 다양한 기초생명공학 분야에 골고루 투자해 국가의 신약 개발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위기는 잘 극복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신종플루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G

글 · 전상일(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 · 환경보건학 박사)

4대강
살리기
제25화
2012년 10월 충주 탄금대
글·이연수 그림·이호

서울을 떠난 지 사흘째.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남한강 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침내 충주에 도착했습니다.
와~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두물머리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상스키와 요트를 즐기고 있더군요.

깊고 푸른 강물이 사람들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저거 타고 가자!
시간 없는데….

황금연휴 기간 동안 가고 싶은 곳도 많았지만 굳이 충주를 선택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화한 강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산악자전거 모임 여행 계획

천연의 모습을 되찾은 생태습지도 살펴보면서 쉬엄쉬엄 왔는데 벌써 충주 탄금대네요.

탄금대는 신라시대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고 합니다.
탄금대

엇!
쉿!

우리는 오늘 탄금대에서 우륵 선생과 신립 장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길이 되살아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이어져 흐르나 봅니다.

구술전자민원서비스 '일꾼시스템' 도입한 서울 노원구

말로 신청하면 2분 만에 처리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민원이 처리된다.
서울 노원구청의 구술전자민원서비스 '일꾼시스템'을 소개한다.

구술전자민원서비스로 기존의 민원서비스보다 10분의 1 정도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을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서울시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노혜정(35) 씨는 깜짝 놀랐다. 첫째 아이 때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려니까 담당 직원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처리가 완료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담당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전에는 20분 정도 걸렸던 출생신고가 이번엔 단 2분 만에 끝났다.

노원구는 9월 1일부터 구술전자민원서비스 일명 '일꾼시스템'을 관내 19개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꾼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서식이 자동 형성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민원서비스는 ①민원인이 서식을 선택해 ②신청서를 작성하고 ③담당자에게 그것을 제출한 뒤 ④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비해 구술전자민원서비스는 앞의 세 가지를 생략하고 담당 직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한 담당 직원은 민원 내용을 컴퓨터상의 민원 서식에 작성한다. 민원인이 담당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양면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후 전자서명 패드에 서명하면 민원 처리가 완료된다.

고령자 · 장애인 · 다문화가족 등 만족도 특히 높아

담당 직원이 서식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컴퓨터 모니터에 특수필름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시야 각도가 30도를 벗어나면 누구도 모니터 내용을 볼 수 없다. 컴퓨터가 설치된 양옆에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서식 내의 모든 주민번호 뒷자리 5개를 마스킹(Masking)으로 가려 안심하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원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10~20분이 소요됐다. 그런데 구술전자민원서비스는 고작 2, 3분 소요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구술전자민원서비스는 종이 서류를 사용하지 않아 민원 신청 1건당 1백10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1백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1백만 그루의 묘목을 심는 효과라고 한다.

노원구는 최근 구술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을 마쳤다. 오는 11월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시민참여포럼에서 이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김용우 팀장은 "직원들과 주민들 모두 구술전자민원서비스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자와 지체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기존 민원서비스	필기대에서 서식 선택 ➡ 신청서 작성 ➡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신분증 확인 ➡ 기재사항 검토 ➡ 처리 작업
구술전자민원서비스 (일꾼시스템)	민원 구술 및 신분증 제시 ➡ 민원 선택 및 인적사항 입력 ➡ 자동화 서식 형성 ➡ 전자 서명 ➡ 처리 작업 ➡ 구청 서버에 저장

내 눈의 들보

글과 그림 · 최영순

군자는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반성하지만
소인은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꾸짖고 남에게 구한다.
– 논어

다음 지하철역은 '정신건강 체크' 역입니다

명동역·동대문운동장역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 설치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 상태를 지하철역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면?
서울시 중구 정신보건센터는 명동역과 동대문운동장역에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이젠 정신건강도 스스로 알고 관리하자.

동대문운동장역 13번 출구 쪽에 있는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중에 손쉽게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서울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과 명동역에는 색다른 기계가 있다. 서울시 중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한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비)다. 2개의 스크린 가운데 위쪽으로는 정신건강에 관한 영상자료를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터치스크린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 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0월 6일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운동장역 키오스크 앞. 키오스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름 밝히기를 거절한 한 여성은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정신과에 가기를 꺼리지 않느냐"며 "혼자서 진단해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여고생들은 "재미있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왔다"며 친구와 함께 검사를 하기도 했다.

생애주기별 구성… 정상군과 위험군 알려줘

기자도 직접 검사를 해봤다. 키오스크 검사는 영·유아(0~6세), 아동·청소년(7~18세), 성인(19~60세), 노인(61세 이상)의 생애주기별로 구성돼 있다. 성인을 선택하자 우울,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검사가 나왔다.

이 가운데 우울증 검사를 선택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등의 문항에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 빈도를 체크하게 돼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로, 선택한 항목의 점수가 합산돼 '정상군'과 '위험군'을 알려준다. 기자는 다행히 정상군으로 나왔다.

영·유아 검사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24~36개월과 36개월~4세로 나눠 해당 연령대의 최소 사용 언어를 선별해 80퍼센트 이상 사용하지 못하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10월 6일 서울 중구 보건소 강당에서 열린 키오스크 설명회에는 전국 각 지역 정신보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을 선택하면 인터넷 중독,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등 네 가지 증상을 검사할 수 있다. 또 61세 이상은 '어르신' 버튼을 눌러 우울, 자살사고, 기억력(치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항은 서서 검사해야 하는 점과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배려해 20개가 넘지 않는다.

검사 결과 위험군이면 화면에 연락처를 남기는 난이 뜬다. 연락처를 남기면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건강관리 등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락처를 남기기 싫다면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중구 정신보건센터 전화번호와 약도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중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해준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로 보며, 이 중 1퍼센트는 집중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마음에 병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우울하고 짜증이 날 때 바쁘다고 무시하지 말고 마음을 돌보자. 출퇴근길 지하철역에 들러 3분이면 검사 끝.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를 이용한 간단한 진료로 정신건강도 챙기고 상담 등의 무료 서비스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가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17.5퍼센트이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6퍼센트로 나타났다. 우울증도 어느 정도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9.2퍼센트에,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4퍼센트나 됐다.

3분이면 끝… 상담 등 무료 서비스 안내도

반면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실제로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중 68.9퍼센트는 주변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우울증 성향자 중 주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아본 사람도 전체의 31.5퍼센트에 그쳤다.

중구 정신보건센터 김현정 팀장은 "사회적 편견 탓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드물지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며 "손쉽게 정신건강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키오스크에 대한 반응은 괜찮다. 9월 14일 설치한 뒤 28일까지 2주간 명동역에서 1백16명, 동대문운동장역에서 9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이용현황을 보면 성인이 가장 많고, 아동·청소년, 영·유아, 노인 순이었다. 또 문제 종류별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자살, 우울, 알코올 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 정신보건센터 측은 "예산 문제로 두 군데 지하철역에만 설치했지만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3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오스크를 통한 정신건강 진단은 2, 3분이면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결과는 매우 정확하다. 키오스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정신건강 진단에 널리 쓰이고 있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김 팀장은 "정신건강 진단 키오스크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키오스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월 6일 서울 중구 보건소 강당에서 열린 키오스크 설명회에는 경남, 인천, 성남, 대구, 충북 등 전국에서 온 60여 명의 지역 정신보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구 정신보건센터 측은 "설문지를 프로그래밍하고 키오스크를 제작 설치하는 데 1천5백만원이 들었다"며 "국민 정신보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생각에서 프로그램과 키오스크 정보를 다른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스트레스, 취업 걱정, 돈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 현대인들은 대부분 긴장과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날 때 바쁘다고 무시하지 말고 마음을 돌보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길에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다. 중구 정신보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가진단은 물론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서울 중구 정신보건센터 Tel 02-2236-6606~8 junggumind.or.kr

KIA 공격의 핵인 최희섭(왼쪽)과 김상현(가운데). 그리고 부활한 '바람의 아들' 이종범(오른쪽).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 KIA 타이거즈

대망의 V10… 가을, 잔치는 시작됐다

준비는 끝났다. 12년 만에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KIA가 '타이거즈 한국시리즈(KS) 불패 신화 재연'과 '대망의 V10'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일찌감치 한국시리즈에 직행, 치열하면서도 여유 있게 가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KIA는 10월 15일 광주무등야구장에서 한국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해태 시절을 포함해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1983년 첫 우승을 일군 타이거즈는 1986년부터 4년 연속 챔프에 오르는 등 최전성기를 달렸다. 1991년과 1993년 징검다리 우승에 이어 1996~97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01년 8월, '쇠퇴한 명가' 해태에서 KIA로 간판을 바꿔단 지 9년 만에 다시 'V10'을 눈앞에 뒀다. 타이거즈는 그동안 아홉 번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단 한 번의 좌절 없이 매번 우승컵을 들어올린, '진정한 한국시리즈 강자'다.

'V10'을 향한 의미 있는 페넌트레이스 1위

붙박이 톱타자 이용규가 불의의 부상으로 낙마하고 믿었던 마무리 한기주가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위기를 키우면서 연이은 '불쇼'를 펼치는 등 지난 4월까지만 해도 KIA의 행보는 불안했다. 어쩔 수 없이 에이스 윤석민의 보직을 잠시 마무리로 돌리는 등 진통도 겪었다.

하지만 구톰슨, 로페즈 두 빼어난 용병 투수와 시즌 개막 전 '트레이드 카드'로 거론됐던 양현종 등 선발 마운드의 막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차츰 힘을 냈다. 불펜에선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유동훈과 손영민이 힘을 보탰다. 조범현 감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펜진을 최강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기용'을 했고, 이는 KIA가 긴 연패 없이 시즌을 치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

시즌 초반 한때 꼴찌까지 추락했던 KIA는 막강한 선발 마운드의 힘을 주춧돌 삼아 차곡차곡 승수를 만회하며 결국 전반기를 3위로 마쳤다. 7월 28일 후반기 시작과 함께 무서운 힘을 내더니 8월 2일 시즌 첫 4연승을 올리며 2천5백16일 만에 페넌트레이스 1위에 올라섰다. 그 후 거침없는 페이스는 이어졌다. 최

동아DB

근 2년간 양강 체제를 형성했던 SK(21~23일), 두산(28~30일)과의 원정 3연전을 잇따라 싹쓸이하는 등 '찬란한 8월'을 보냈다. 8월 들어 11연승을 내달리며 KIA 창단 후 최다연승 타이기록을 세웠고, 한 달간 무려 20승을 거두며 프로야구 역대 월간 최다승 신기록(기존 19승)도 새로 썼다.

9월 들어서도 KIA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마지막 7게임을 모두 잡으면서 시즌 막바지 아시아 신기록인 19연승을 달리며 턱밑까지 따라붙은 '디펜딩 챔피언' SK의 추격을 따돌렸다. 1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직행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KIA 공격의 핵은 'C-K포'로 불리는 4번 최희섭-5번 김상현이다. 시즌 타율 0.308에 33홈런(2위), 1백 타점(3위)을 기록한 최희섭은 상대 투수들을 심리적으로 압도한다. 5, 6월 컨디션 난조로 고전했던 아픔이 후반기 대분발이라는 자극제가 됐고 빼어난 선구안과 호쾌한 타격으로 팀 타선을 이끈다. 특히 페넌트레이스 막판 최고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그는 "한국 무대 복귀 이유였던 타이거즈 우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시즌 전, 4강 진출을 목표로 했던 KIA가 예상을 깨고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건 김상현의 힘이 절대적이다. 4월 중순 LG에서 트레이드된 김상현은 2000년 신인 2차 지명 6번(전체 42번)으로 해태에 입단했던 '타이거즈 맨'. 2002 시즌을 앞두고 LG로 이적했다 7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왔고, 이후 KIA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그가 가세하기 전까지 KIA는 최희섭 외에 이렇다 하게 장타를 때릴 수 있는 거포를 보유하지 못했고, 최희섭 역시 상대 견제가 집중되면서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김상현의 가세는 팀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고 그는 홈런(36개), 타점(1백27개), 장타율(0.632) 등 공격 3개 부문을 석권해 사실상 정규시즌 MVP를 예약했다.

김상현은 특히 8월 한 달간 24경기에서 15홈런 38타점을 마크했다. 둘 모두 프로야구 역대 월간 최다 기록 타이다. 홈런은 1999년 이승엽, 타점은 1991년 장종훈이 기록했다. 김상현은 결국 이승엽과 장종훈을 합한 활약을 펼쳤고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포스트시즌을 한국시리즈에서 맞게 됐다. "개인 성적보다, 팀이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다.

'준비된 지도자' 조범현의 리더십

조범현 감독은 꾸준히 공부하는 '준비된 지도자'다. KIA 사령탑 부임 첫해였던 지난해, 6위에 머문 아쉬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다. 2년간 첫 계약의 마지막 해. 재계약을 염두에 둔 대부분의 감독들은 눈앞의 성적에 욕심을 낸다. 첫해 성적이 6위에 머물렀다면 더 그렇다. 그러나 조 감독은 달랐다. 꼼수를 부리기보다 장기적인 팀 플랜을 중시했다. 원칙을 중시하며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되레 좋은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6월 이후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기회가 왔을 때도 그는 "아직 때가 아니다"면서 무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8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동아DB

원칙을 중시하는 KIA 조범현 감독.

그가 지휘봉을 잡은 지 만 2년도 되지 않아 KIA는 몰라보게 다른 팀이 됐다. 이제 KIA 선수들에겐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 합리적인 성격의 조 감독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했고, 개인보다 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KIA 선수들 중엔 팀은 졌지만 자신만 안타를 많이 때렸다고 좋아하는 선수는 없다. KIA는 과거 근성으로 똘똘 뭉쳤던 해태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엔 조 감독의 화려하지는 않으나 강한 리더십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일찌감치 합숙 훈련에 돌입, 실전 모드에서 치열한 담금질을 계속해온 조 감독은 "이제 한국시리즈에서도 우리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10월 15일. 한국시리즈 1차전이다. '호랑이들'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G

글 · 김도현(스포츠동아 스포츠부 기자)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추천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내가 믿는 것은 합리적인가, 옳은 것인가

여기 한 남자가 있다.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 죽음으로 이끌었던 나치 전범 아이히만이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권력자의 명령과 실정법에 따라 충실히 일했을 뿐이라며 당당해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신념이라고 믿는 악을 행하고 있다.

'시골의사'란 필명으로 알려진 외과의사 겸 경제평론가 박경철(45) 씨는 하루에 책 한 권은 꼭 읽는 책 마니아다.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등 경제 관련 책을 펴낸 그는 TV, 라디오 등에서 방송 진행자로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는다.

신경숙의 단편집에서부터 논어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섭렵한다는 박 씨가 요즘 곱씹으면서 읽기를 반복하는 책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지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란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제목과 부제만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치철학가 한나 아렌트가 르포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치 전범 아이히만이 전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돼 재판받는 과정을 그리죠.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참회나 반성이 아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다는 당당함이었죠."

'시골의사' 박경철 씨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으면서 "비판적인 분석 능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치 전범 아이히만 체포에서 재판까지 르포로 다뤄

아렌트가 본 아이히만은 피에 굶주린 살인마가 아닌 권력자의 명령과 실정법에 충실했던 소시민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권력과 체제의 요구에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던 양심과 사고능력의 결여였다. 박 씨는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면서 지적했던 세 가지 무능성, 즉 말하기, 판단, 생각의 무능성을 들어 현재 우리 사회의 병증을 꼬집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터넷 댓글만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만 옳다며 막말을 일삼아 상대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모습이 잘못된 신념에 따라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아이히만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분석 능력을 잃어버린 대중은 누구나 거대한 악의 전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신념을 따른 사람이 보여주는 행위는 아이히만이 보였던 '악의 평범성'으로 되풀이된다. 박 씨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광우병 사건 등 어느 한쪽도 굽히지 않는 팽팽한 신념 속에서 한쪽에 매몰돼 따르기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만, 시민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비판적인 분석을 합니다. 지성인은 그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다른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보고 믿는 것만이 진리는 아닙니다. 귀를 열고 눈을 떠 상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만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아이히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장원 송개신 · 꼴찌 이숙번 엇갈린 운명

권력은 성적순이 아니었다

무릇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성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리 녹록하던가. 오늘날의 공직사회에도 귀감 혹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만한 조선시대 공직자와 그들의 벼슬살이를 소개한다.

조선에서 중앙관리로 진출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간지(干支)에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들어가는 식년(式年)에 실시되는 문과(文科 혹은 大科)에서 33명 안에 들어야 했다. 3년마다 식년에 실시된다는 점에서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도 같았다.

관리가 되려면 먼저 식년 전해 가을에 실시되는 초시(初試)를 통과해야 했다. 문과 초시의 경우 성균관 유생(50명)과 한양(60명) 및 지방(1백40명)으로 미리 인원을 배분해 2백50명을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이듬해, 즉 식년 봄에 3단계로 된 엄격한 시험인 복시(覆試)를 치렀다. 복시를 통해 33명이 선발되지만 우열은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殿試)에서 정해졌다.

세조 때 정비된 규정에 따르면 일단 33명은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분등했다. 문과에 급제하더라도 전시에서 어떤 성적을 얻느냐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 최초의 식년시는 1393년(태조2년) 계유년(癸酉年) 봄에 있었다. 전시에서는 통상 정승급이 지공거(知貢擧)라는 선발 최고책임자를 맡고, 그 아래 지공거를 돕는 동지공거(同知貢擧)는 판서급이 맡았다. 조선의 관직에서 동(同)은 바로 아래 등급이라는 뜻이다. 계유년 문과의 지공거는 설장수(偰長壽·1341~1399), 동지공거는 원현(元絃)이었다. 설장수는 아버지가 위구르에서 귀화한 인물로 조선 건국에 크게 기여한 이색적인 인물이다. 학식이 뛰어났고 중국어에 능통해 사역원(司譯院)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건국 초 인재 양성

조선시대 첫 장원급제자 송개신은 관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반면 을과 7등 이숙번은 벼슬살이 5년 만에 이방원의 쿠데타를 도와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됐다. 그러나 공신 보호라는 미명으로 유배를 당하는 등 정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일러스트 · 이우정

에 크게 기여했다.

태조 이성계와 설장수 등은 33명 중 최고를 뽑으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개국 초였기 때문에 장차 조선의 종묘사직을 튼튼히 해줄 수 있는 미래의 정승감을 뽑으려 했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계유년 6월 13일(이하 음력) 송개신(宋介臣)이 장원급제자로 뽑혔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송개신은 관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왜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태종3년(1403년) 11월 27일자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이날 태종은 오늘날의 장군에 해당하는 대호군(大護軍) 송거신(宋居信)에게 자신이 좋아하던 기생 양대(陽臺)를 빼앗기자 당대의 실력자인 조영무의 집에 '송거신이 영무를 죽이려 한다'는 익명의 투서를 했다가 발각된 송개석(宋介石)을 곤장 1백대를 쳐서 합포(지금의 마산)로 귀양 보냈다. 송개석은 송개신의 동생이다. 대신(大臣)과 관련된 거짓 투서는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하지만 송개석의 늙은 어머니가 태종에게 "큰아들 개신은 죽고 개석만 남아 있사오니 부디 목숨만 살려 제사를 잇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해 사형이 유배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다.

반면 송개신이 장원을 했을 때 을과 7등으로 간신히 을과에 턱걸이한 이숙번(李叔蕃 · 1373~1440)의 관력(官歷)은 송개신과 대조적이다. 문과 급제 1년 후(1394년)에 좌습유(정6품으로 훗날 사간원 정언)에 오른 이숙번은 다시 4년 후인 1398년(태조7년) 8월 26세의 나이로 5품직인 안성부 지사(안성군수)로 있을 때 하륜과 함께 이방원의 쿠데타를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2등에 책록되고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졌다. 공을 세움으로써 벼락출세길이 열린 것이다.

이때부터 그의 승진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정난 열흘 후인 9월 5일 정3품 요직인 우부승지로 뛰어올랐고, 2차 왕자의 난 때도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1등에 책록됐다. 태종 즉위 후에도 군부 요직을 두루 맡았고, 40세인 1412년(태종12년)에는 3정승 바로 아래인 종1품 숭정대부로 승진해 1413년 병조판서를 지내는 등 정승(정1품)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태종15년 공신 보호라는 미명으로 요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듬해에는 불충 무례하다는 이유로 공신 자격을 박탈당하고 태종17년에는 경상도 함양으로 유배를 감으로써 완전히 중앙 정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제아무리 공신이라도 지존(至尊)의 심기를 건드리고서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남기 힘들다는 교훈을 남긴 인물이 바로 이숙번이다. G

글 · 이한우(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가을… 소나무 운치를 사진으로 만난다

소나무로 유명한 '배병우 사진전'

일시	12월 6일(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월요일은 휴관)
장소	덕수궁미술관
관람료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초등학생 1천5백원
문의	2188-6000 www.moca.go.kr

서울 덕수궁미술관에서 '배병우 사진전'이 한창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소나무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배 씨는 2006년 동양의 사진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티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후 스페인 정부의 의뢰를 받아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을 2년 동안 촬영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사진계의 급성장을 주도한 그는 사진가이기보다 예술가임을 자처하며 창작활동과 후학 양성은 물론 대규모 그룹전을 이끌면서 사진을 하나의 예술적 표현도구로 인식시켰다.

이번 전시는 대상의 본질을 찾아내 회화적 사진으로 재현한 배 씨의 작품세계를 밀도 있게 조명하고 있다. 그가 나고 자란 고향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소나무 사진, 우리 자연의 부드러운 능선을 포착한 오름 사진,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가 극치를 이룬 창덕궁 정원 사진과 함께 오랜 역사의 흔적이 묻어나는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 사진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박영란 학예연구사는 "배병우 씨는 사진을 통해 한국 고유의 미감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형언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도 그의 작품세계에 깊이 매료되곤 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김동규 노영심 더블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일시	10월 19일(월)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2061-2301~4 www.sac.or.kr

특유의 쿳수염과 열정적인 무대 매너가 돋보이는 바리톤 김동규와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의 소유자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노영심이 마련한 더블 콘서트.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의 감미로운 노래와 노영심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한 편의 영화 같은 음악의 사계절을 완성한다.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에 낭만을 더할 이 무대에는 소프라노 지선정, 지휘자 윤의중, 서울 프로뮤지카 오케스트라도 함께한다.

연극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일시	10월 20일(화)~2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청소년 30퍼센트 할인(10세 이상 관람가)
문의	02-766-6925 www.ntok.go.kr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통해 남은 가족들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감동적인 작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을 각색한 이 공연에서는 1930년대 우리의 전통적인 살림살이와 생활 모습이 한 편의 묵화처럼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한국방언학회와 협력해 복원한 구수한 함경북도 방언이 관객의 이목을 끈다. 특히 수레를 끌고 강을 건너는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2009년 12월, 봄처럼 활~짝
대한민국 미소금융이 피어납니다!
Smile again
스마일 어게인
희망을 빌려주는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프로젝트
신용도가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이 올 12월, 미소금융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공동대출
▶전통시장 상인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일반 창업자금
종합안내센터
1600-5500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재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써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서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
미소금융중앙재단

이명박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9월 25일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정례화 이후 첫 정상회의를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